

제2세션 14:05~15:25

온라인 사전 녹화 중계

일반 세션

사회: 손승혜(세종대)

1. 여성혐오와 일상적 민족주의의 교차:

구소련권 여성 관련 유튜브 콘텐츠의 재현과 수용

발표: 이은별(한국외대)

토론: 오현주(한국콘텐츠진흥원)

2. 유튜브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이슈유튜버, 일명 사이버 렉카들의 성차별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발표: 이지형(한국외대)

토론: 홍남희(서울시립대)

3. 기혼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표: 남수정(부산대) · 홍지훈(부산대)

토론: 이승희(한국콘텐츠진흥원)

4. 혐오의 정당화: 방역 상황에서의 성소수자 혐오

발표: 김시언(서울대) · 예주(서울대) · 김수아(서울대)

토론: 김민정(한국외대)



여성혐오와 일상적 민족주의의 교차: 구소련권 여성 관련 유튜브 콘텐츠의 재현과 수용

이은별(한국외국어대학교)* · 김현진(한국외국어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구소련권 여성에 관한 유튜브 영상 콘텐츠의 재현과 수용 방식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코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2년 2월 14일까지 게시된 구소련권 여성 관련 유튜브 콘텐츠의 제목과 댓글을 수집한 후, 키워드 분석, 토픽모델링, 프레임 분석을 수행하여 구소련권 여성에 관한 담론을 세 가지 층위로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구소련권 여성을 집단화하여 연애 및 결혼의 대상으로 재현하고 있었고, 주로 여성의 외모와 태도를 평가하거나 한국문화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혐오 프레임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 프레임 또한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가부장제의 해체를 경험한 남성들의 관음적인 시선이 구소련권 여성들에게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여성들을 한국 문화에 적응가능한 ‘우리’로 포섭하려는 남성들의 암묵적인 제안에 기꺼이 순응하는 구소련권 여성들의 모습도 드러났다. 결국 한국 사회의 참여 한 젠더 갈등에서 여성혐오를 대안으로 채택한 남성들로 인해 구소련권 여성을 통해 가부장적 남성성을 재생산하는 낙수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 반복 재생산되는 일상적 민족주의와 ‘자연화’ 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가 교차하는 현상을 분석하여 기존 여성혐오 담론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구소련, 여성혐오, 유튜브, 민족주의, 인종주의

*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외교센터 전임연구원 (eunbyully@gmail.com)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박사수로 (hyunjink24@gmail.com)

1. 서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뉴스 보도에 “장모님의 나라를 구하자”라는 댓글이 수많은 네티즌의 추천을 받았다. 이처럼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구소련권 국가¹⁾를 수식하는 ‘장모님의 나라’, ‘엘프의 나라’, ‘김태희가 받을 가는 나라’와 같은 표현이 일상으로 들어와 있다. 이는 KBS <미녀들의 수다(2006~2010)> 토크쇼에 출연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연예인을 빌어 “김태희가 받을 같고 한가인이 소를 모는 나라”라는 식으로 해당 국가의 여성들을 일반화 한데서 시작된 것이다. 그 후 JTBC <비정상회담> 게스트로 출연(82회, 2016.1.25. 방영)한 우크라이나 출신 남성 안드리 쿠르토프는 “우크라이나 하면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김태희 같은... 전지현이 빨래하고 송혜교가 나물을 판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실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미녀가 많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라며 ‘우크라이나 여성은 미녀’라는 고정관념에 썩기를 박았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은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자치공화국의 검찰총장(나탈리아 포클론스카야)의 사진을 진행자가 들어 보이자 “WOW”라는 자막과 함께 출연진들이 감탄하였다. 이처럼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공연히 여성의 외모를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로 고정시키던 행태가 온라인 밈(meme)으로 재탄생하며 구소련 국가를 지칭하는 표현들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때 2005년에 설립, 2008년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게시한 유튜브(Youtube)²⁾가 구심점 역할을 한다.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동시에 해당 콘텐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따라 구소련권 여성이 직접 영상을 게시하거나 해당 국가로 여행을 떠난 한국인이 앞서 언급한 여성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동원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이는 소련 해체 이전인 1990년 한·러 외교 관계 수립을 통한 탈이념의 상징화, 2008년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및 2014년 상호 비자 면제협정과 같이 러시아를 위시한 구소련권과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의 한 단면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 협력 강화와 더불어 문화·관광·인적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그로 인해 구소련권에서의 개인적 경험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최우익, 2021)에 따르면, 한국인은 ‘러시아’를 통해 소련(48%),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

1) 구소련(former Soviet Union, Post-Soviet states)은 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지칭하며, 1922년 12월 설립되어 1991년 12월 해체되었다. 구소련권 국가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조지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몰도바 총 15개국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이들 국가 중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여성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들 국가를 편의상 구소련권 국가로 통칭하여 표기한다.

2) 2021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채널로 텔레비전 방송(61%), 인터넷(36%), 유튜브(29%)가 꼽혔고, 러시아를 알게 된 출처로 방송(7%)이 가장 높았고, 유튜브(6%)가 뒤를 이었다(최우익, 2021). 이는 러시아를 이해하는 데 유튜브가 개별 매체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는 러시아를 비롯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등 구소련 국가들(11%)을 떠올렸고, 공산주의나 공산국가(18%), 소련 및 구소련(17%)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였다. 이는 한국인 대다수가 러시아를 여전히 '소련'과 결부하여 인식하거나 구소련권 개별 국가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유튜브 내 구소련권 관련 영상들은 일반 대중들의 편협한 세계관과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양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구소련권 여성이 이미지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된 관련 영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유튜브 영상은 구소련권 여성을 어떻게 재현하는가?

연구 문제2. 구소련권 여성 관련 유튜브 영상은 어떻게 수용되는가?

연구 문제3. 유튜브 영상 콘텐츠와 댓글에 나타나는 구소련권 여성의 문화적 코드는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구소련권 여성에 관한 유튜브 영상 콘텐츠의 재현과 수용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문화적 코드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구소련권 15개국 중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 영상의 제목과 댓글을 수집한다. 그리고 키워드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프레임 분석을 통해 구소련권 국가 및 국민, 그중에서도 여성의 이미지가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혼재된 여성 혐오로 표출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그간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나 다문화 사회 도래에 따른 외국인 수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외국인 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담론 형성을 유튜브 영상 콘텐츠와 댓글로 분석한 시도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소련권 여성 관련 유튜브 영상과 댓글을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시청이라는 개인적 경험이 특정 외국인 여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실천과정에 총체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1) 구소련 국가와 국민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은 2018년부터 매년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과 국가 이미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바라보는 타자의 인식과 한국, 한국인 이미지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해외 홍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외부인의 인식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가늠하는 척도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긍정적 요인은 강화하고 부정적 요인은 개선해나가는 것이 보편적인 국가 브랜드 마케팅이다. 이러한 연유로 국제사회의 자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 및 국민 이미지 구축은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구소련권 국가 중에서는 미-소 양강체제부터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구축에 집중해오고 있다. 한국인의 러시아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인지적·정서적·행태적 차원으로 분석한 강봉구(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소련 시기부터 푸틴 시대까지 러시아의 변화상을 면밀히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정서적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냉철한 이미지가 완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러 관계에 한정된 편협한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타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관이 러시아에 한정되는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제 정세의 변동성과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인식 향상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에서 상호 이미지는 상반된다. 러시아 청년 세대의 경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드러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영향력에 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김세일, 2020). 하지만 이 연구는 설문 조사의 대상인 376명의 연령대와 성별, 표본 수집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응답자들이 한국에 대해 무조건적인 선호를 표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러시아를 과거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의 독재국가라는 피상적인 정보에 매몰되어 있었다. 방교영(2011)은 20~30대 한국 여성들의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했는데, 전반적으로 냉혹함, 공격성, 전근대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전쟁과 공산주의에 점철되어 강압적이고 남성적인 사회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나아가 엄격하고 냉소적인 대가족에 뚱뚱한 어머니의 모습을 띤 가족 구성은 러시아 국가 전체를 공격적이고 투박하게 만들었다. 이 연구는 한국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지만, 러시아에 대한 한국 젊은 세대의 제한적인 이미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 여기에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러시아를 인식하는 한국의 언론 보도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 관한 한국의 언론 보도를 분석한 김현진·전창영(2021)에 따르면, 한국 언론은 국제 관계 차원에서 러시아를 미국, 북한과 중국의 정세에 따라 해석하였고, 올림픽에 출전한 러시아 선수의 도핑 문제와 같이 특정 이슈에 집중하여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였다. 이는 자국 중심적·사건 중심적 보도라는 한국 국제 뉴스의 한계를 드러내는 한편, 한국 언론의 러시아 보도 감성 지수는 의혹, 비판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여 과거에 정체된 독재공산국가의 이미지를 반복 재생산하고 있었다.

영미권의 기행 문학 작품으로 재현된 러시아 역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시공간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슬라브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하나인 레이첼 폴론스키(Rachael Polonsky)와 시베리아 여행작가인 이안 프래지어(Ian Frazier)의 작품에 드러난 러시아의 '상상된 지리'를 연구한 푸르지나(Purgina, 2020)에 따르면, 러시아는 소비에트 체제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완전한 근대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련 해체 이후에도 여전히 개인과 국가 간 위계질서가 공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인들은 과거와 단절된 채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텍스트화된 여행기보다 여행 정보와 유희성을 두루 갖춘 유튜브 콘텐츠에서의 재현과 구소련 국가들

의 사회 체제 변화가 가져온 젠더상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매체 환경 변화에도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와 국민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구소련권 국가들에 관한 개별적인 분석의 부재도 한계라 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구소련 국가들의 체제 강화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성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여행안내서처럼 정형화된 정보와 달리 해당 국가 출신이거나 외국인 여행자로서 주관적인 경험이 담긴 여행기를 영상화하여 공유하는데 적합한 유튜브 영상에 나타나는 국가 및 국민, 그리고 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외국인 인식과 민족주의

인식이란 타자 혹은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갖는 신념을 지칭하며(Stricker, 1996),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외국인에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신념을 의미한다(이수범·서민혜, 2017). 한국에서 외국인 인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다문화 현상과 관련한 연구를 중심으로 학문적·실천적 관점에서 다뤄졌다(윤상우·김상돈, 2010).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국제화 등에 따라 이질적 문화가 유입하며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많은 국가가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황창호·정세희, 2019).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의 정체성이 강하고 다문화 사회 또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위한 제도적 조건이 취약한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20)에 의하면, 한국 거주 외국인주민³⁾ 수는 2007년에 100만 명을 넘었고 2020년에는 214만 명에 달하며 국내 총인구의 4.1%를 차지했으며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터넷, OTT(over-the-top media service) 콘텐츠,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문화와 생활상은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 곳곳에 알려지고 소비되고 있다. 이는 다양하게 분화되는 인종, 문화, 지역, 종교 등의 도전에서 더이상 자유롭지 못하며, 자국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열린사회로 전환돼야 함을 시사한다(장사형, 2017).

외국인 인식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이주민 집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다문화수용성, 외국인 수용성 및 관계양상에 주목한 연구로 나뉜다(김이선 외, 2007; 황창호·정세희, 2019 참고). 우선 이주민 집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인식을 연구하거나(임희경·안주아·신명희, 2012), 외국인에 대한 입법 및 관련 제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황미경, 2010; 나달숙, 2013; 조운용·황성욱, 2017; 민지원, 2020). 한편 다문화수용성, 외국인 수용성 및 관계양상과 관련하여 국민정체성, 접촉 경험, 세대, 성별, 교육 등의 특정 요인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가 다수 있었으며(신학진, 2013; 김금미·안상수, 2014, 오상아·한유경·양영은, 2017; 박서연, 2019; 황창호·정세희, 2019; 육

3)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거주한 지 90일을 초과한 외국인·귀화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 대비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주원·신형진, 2021, 남보영·홍이준, 2021), 구체적으로 기존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편향성을 비판한 연구(김진희, 2019; 김미영, 2021)와 외국인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외국인 수용성을 비교한 연구(유승무·이태정, 2006; 황정미 외, 2007; 임도경 외, 2010; 채영길, 2010; 김동수, 2011; 임도경·김창숙, 2011; 남부현 외, 2014; 김혜신, 2015)가 수행되었다. 위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대체적으로 미국인에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반면 새터민,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 동남아시아인, 흑인 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와 외국인 수용성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김희자, 2009; 채영길, 2010; 이수범·서민혜, 2017, 장유민 외, 2021)는 미디어상에 나타나는 특정한 관점이 이용자의 외국인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희자(2009)는 영상 콘텐츠 속에서 외국인에 대한 타자화가 지배주의적 관점에서 이뤄지는지 또는 소수자와 다문화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이뤄지는지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다수의 연구에서 한국 사회는 단일(순혈) 민족주의가 다문화주의가 건전하게 정착하고 다문화정책이 제도화하는 데 실패 원인으로 지목했으며(강진구, 2012; 최영은 2016; 박종대·박지해, 2014; 한경구·한건수 2007),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문적·실천적 관점에서 외국인 인식 담론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민족주의가 외국인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했다.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및 민족주의(nationalism)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가 엘리트의 공적 담론을 중심으로 거시적, 구조적 시각에서 이뤄졌다. 이에 관해 홉스봄은 민족주의가 위로부터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 분석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Hobsbawm, 1992), 학계의 많은 연구에서 민족주의가 대중적 현상임에는 동의했으나 정작 '대중'에 관한 연구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Whitmeyer 2002; Fox and Miller-Idriss, 2008; 이세희, 2021에서 재인용). 이러한 기존의 전통적인 민족주의 연구의 한계가 지목됨에 따라 새로운 차원에서 민족주의 담론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에텐서는 대중문화, 물질문화, 일상공간 등 일상 속에서 민족 정체성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방식을 탐구했으며(에텐서, 2008), 빌리그는 전통적인 개념의 민족주의에서 나아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 생각, 행동 속의 국민됨을 의미하는 '일상적 내셔널리즘(banal nationalism)'⁵⁾에 주목했다(Billig, 2020). 그는 내셔널리즘이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친숙해서 쉽게 간과되는 일상의 민족주의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Billig, 2020). 온라인을 통해 대중의 목소리가 시시각각 전달될 수 있는 오늘날 대중의 일상 공간 속 발화, 행동 담론에 내재한 일상적 내셔널리즘에 관한 연구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민족주의 담론은 성별, 젠더, 인종, 민족, 계급의 개념이 서로 교차하며 이전에 없던 차별 혹은 특

4)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란 개념은 각 지역의 역사적 맥락, 환경, 정체성에 따라 종족주의, 민족주의, 국민주의, 국가주의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은 지역(동아시아)과 민족 개념에 있어 종족적·인종적 동질성에 기반하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장인성, 2000), 본 논문에서 이론적 개념은 '내셔널리즘'으로, 한국의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로 번역·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5) 빌리그가 제시한 'banal nationalism'은 '평범한 일상 속의 국민됨'을 의미하며 한국어 역사에서 '일상적 국민주의'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한국의 인종과 민족 정체성에 따른 일상적 구분을 강조하고자 '일상적 민족주의'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권이 발생한다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로 확장된다. 유발-데이비스(Yuval-Davis, 1997)는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사이의 대립적인 관계를 탐구하며 국가성, 문화, 시민권과 국가 갈등, 전쟁 등 국가의 민족주의 담론에서 젠더 개념의 영향을 분석했다. 엔지와 한(NG J&HAN E, 2018)은 소셜미디어 댓글에 나타난 중국 온라인 이용자의 반일감정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혐오와 민족주의적 비방을 식별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기도 했다. 브조크-제임스(Bjork-James, 2020)는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구분에 따른 우월주의적 사고가 온라인 백인 민족주의 운동의 준거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적 개념 간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이세희(2021)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온라인의 인종(차별)주의 담론 정치와 민족주의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 대중의 대화와 담론에서 의식적·무의식적인 국가로의 귀속 의식이 인지구조로 드러나는 양상을 분석했다. 그중에서도 대중의 언어 표현과 발화, 담론은 발화자의 민족적 습관 및 기질, 행동방식을 내비친다는 점에서 일상적 민족주의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러틀랜드(Rutland, 2021)는 인종주의와 민족주의가 모두 인류를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젠더가 현대 유럽에서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정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장유민 외(2021)는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국제결혼과 다문화의 주요 토픽을 분석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경제적 계층,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인종주의에서 기반한다고 주장했다. 페미니즘 연구에 있어서도 젠더와 인종, 계층에 따른 교차성 개념에 근거해 미국의 유색인종 페미니즘부터 전 지구, 포스트식민주의, 초국적 페미니즘에 이르기까지 인종과 성별에 따른 이중억압에 관한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로즈마리 퍼트넘 통·티나 페르난디스 보츠, 2019). 그러나 이러한 교차성에 근거한 페미니즘 연구는 주로 백인 페미니즘과 구분되는 유색인종 페미니즘의 틀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한국 사회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담론을 구체화하여 일상적 민족주의, 인종주의와 여성혐오의 양상과 상호작용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3)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담론

한국에서 ‘여성혐오(misogyny)’⁶⁾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공론화되었다. 그러나 본 개념이 뜻하는

6) 여성혐오(misogyny)의 문자적 의미는 ‘여성에 대한 혐오’를 뜻하며 그리스어의 혐오(misein)와 여성(gyne)의 합성어이다. ‘misogyny’란 용어가 한국어 ‘여성혐오’로 번역된 것은 우에노 치즈코의 저작 <여성을 싫어함: 일본의 미소지니>가 2012년 여성을 혐오한다고 번역되면서부터였다. 이로 인해 대중은 ‘misogyny’를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혐오 감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큰데, 본래의 misogyny가 내포한 여성혐오는 젠더질서에 담긴 차별, 편견, 비하를 드러내는 집단정서 및 행위를 의미한다. 즉, misogyny는 소수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 성차별, 남성 중심성, 가부장제, 여성비하, 여성에 대한 폭력, 성적 대상화, 남성우월주의 등 인식과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적 확장을 보여주는 개념이다(권현지, 2018).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물학적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고 종속적인 존재이며, 남자는 지배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인식한다면 여성혐오적 사유방식과 행동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편견을 용인하고 직간접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여성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보거나, 남성에 유리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편견 등 비가시적인 방식으로도 작동한다(강남순, 2020).

여성에 대한 ‘떨시’, ‘비하’와 ‘성적 대상화’하는 집단 정서 및 행위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시대 상황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권현지, 2018). 한국 내 여성혐오의 동학은 지난 한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결부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1960년대 이후 40여 년간 여성혐오는 가부장적 사회질서 구축과 공고화를 위해 여성을 통제, 억압, 동원하는 효과적 기제로 활용되었다면, 최근에 주목을 받게 된 여성혐오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구조적 기능성보다 젠더 갈등을 한층 강화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권현지, 2018). 앤더슨(Anderson, 2015)은 여성혐오와 포스트페미니즘 시대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에서 포스트페미니즘 시대는 성평등이 실현하며 헤게모니적 남성성 개념과 권력이 무너지는 상황이 뒤따랐고 여성운동 및 페미니즘에 대한 질시와 역행의 형태가 여성혐오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았다.

페미니즘에 대한 질시와 역행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특히 1999년 군가산점제의 위헌 판결 이후 온라인 상에서 안티-페미니즘 운동이 다양하게 분화, 발전했으며, ‘일간베스트’ 사이트, 각종 여성혐오 페이지를 중심으로 여성혐오 정서가 온라인 공간에서 잠식, 확장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김수아, 김세은, 2016). 2015년 초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2015, 2.5)의 칼럼이 페미니즘을 포털 검색어 1위로 올리며 여성혐오 논란을 점화했다(이하나, 2015, 2, 10). 이후 온라인상에서 ‘페미니스트 선언’이 잇따라 나타났고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 사건의 발생은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학자들이 이러한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여성혐오를 근거로 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주목했으나(김현·손병우, 2020; 김민정, 2017; 이나영, 2016), 주류 언론은 성대결과 젠더갈등의 실재로 보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김현·손병우, 2020; 이나영, 2016).

한편 온라인 공간이 성차별 및 여성혐오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익명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표현은 남성중심 커뮤니티, 페이스북 페이지, 뉴스 댓글 등에서 자주 등장했다(김수아, 2015, 2017; 김수아·김세은, 2016). 이와 함께 여성혐오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운동을 조직하여 낙태죄 폐지, 소라넷 폐기 등의 이슈를 공론화했으며(김리나, 2017), 여성 문화적 역량 조직 및 부정적 효과의 파괴 등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김리나, 2018; 김보명, 2018; 김현·손병우, 2020). 반면 위마드의 등장과 과도한 혐오표현은 오히려 반여성혐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양산했으며(김현·손병우, 2020; 김보명, 2018; 장소연·류용재, 2017), 다수의 언론이 남성혐오 담론과 젠더갈등 담론으로 부각하면서 구조적 문제보다 갈등 양상으로 대중에게 인식되는 한계가 발생했다(김현·손병우, 2020). 이러한 대중적 반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혐오의 개념정의를 여성주의 학자들을 통해 정의되었다. 학술적 개념으로서 여성혐오 개념은 미디어에 의해 대중에게 알려졌고 그 과정에서 ‘혐오’의 의미를 단순히 감정 표현으로 이해하면서 편견을 조장하기도 했다.

오늘날 여성혐오는 신문, 잡지, 게임, 텔레비전,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구성되고 재생산된다. 여성혐오 담론과 젠더갈등은 한국 사회에 전면화하면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변주하며 확산하고 있다. 가상의 공간과 소통 양식을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은 여성혐오가 발생하는 주요인은 아닐지라도, 이를 증

폭시키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과 ‘여성혐오’ 문제와 관련해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윤보라, 2013; 김수아, 2015; 엄진, 2015 참고). 정인경(2016)은 사이버 공간이 남성적 환상에 기반한 왜곡된 표상을 현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세상을 구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부작용으로 정보 격차, 익명성이 야기하는 폭력, 거짓 정보에 따른 피해 등이 인터넷 여성혐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아·김세은(2016)은 ‘여성혐오’를 페이지 핵심 정체성으로 제시하는 페이스북 공개 페이지의 내용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여성혐오’를 놀이로 바꾸는 전략을 통해 ‘문제없는 인터넷 활동’으로 바꾸면서 심리적 저항감을 낮추었다고 보았다. 온라인 공간에 대한 친숙성이 높은 청년 세대가 온라인의 다양한 기술적 특성을 통해 ‘여성혐오’ 담론을 유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수아·이예슬(2017)은 온라인 담론 공간이 확증편향의 장소이며, 남성 중심 커뮤니티는 약자로서 선량한 남성, 갈등을 일으키는 여성을 범죄자로 상치하여 담론을 구축한다고 보았다. 성차별 문제가 단순히 온라인상의 표현 문제를 넘어 일상에서 여성을 담론장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와 이에 관한 반론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혐오 담론과 관련해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외국인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혐오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소련권 여성 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사례로 여성혐오, 일상적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가 어떻게 교착(交錯)하여 담론을 형성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상 대화 속에서 여성혐오와 민족주의, 인종주의가 형성되어 견고한 담론구성체를 형성하며 어떠한 효과를 통해 외국인 여성에 관한 관념을 자연화하고 정당화하는지 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구소련권 여성에 관한 유튜브 영상 콘텐츠의 재현과 수용 방식(연구 문제 1, 2)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 15개의 구소련권 국가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5개국을 선정하고 검색어 ‘러시아 여자(여성)’, ‘우크라이나 여자(여성)’, ‘우즈베키스탄 여자(여성)’, ‘벨라루스 여자(여성)’, ‘카자흐스탄 여자(여성)’를 입력하였다. 검색 결과 스포츠 관련 기사나 해당 국가의 사건 보도와 같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영상(예: ‘나와라 러시아!’ 여자배구, 올림픽 예선 2연승(2019.8.4. 기사))은 배제하였다. 그리고 자료 수집 기점인 2022년 2월 14일까지 게시된 영상 중 구소련권 여성이 직접 출현하거나 언급되어 연구 주제와 연관된 영상 총 399편을 전수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영상의 재현 방식을 분석하므로 영상 게시자의 국적은 구분하지 않았으며, 콘텐츠 제목과 댓글에 한국어를 포함한 경우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나아가 399편의 영상 중 조회 수 상위 20개 영상의 23,376개 댓글 중 각 50개씩 무작위로 추출한 1,000개 댓글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영상 399개의 제목을 통해 구소련권 여성의 재현 양상을 유추할 수 있고, 해당 영상의 댓글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수용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제목 및 댓글 수집, 전처리, 키워드 분석, 토픽모델링 순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프레임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튜브 제목 및 댓글 수집을 위해 웹크롤링 프로그램인 리스틀리(Listly)를 활용했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활용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 수집

우선 유튜브에서 '러시아 여자(여성)', '우크라이나 여자(여성)', '우즈베키스탄 여자(여성)', '벨라루스 여자(여성)', '카자흐스탄 여자(여성)'로 검색한 후 링크를 포함한 유튜브 영상을 웹크롤링 프로그램인 리스틀리(Listly)로 수집하였다. 영상 제목 중 '러여자', '우즈벡 여자', '카자흐 여자' 등 줄임말로 분석 대상에 포함했으며, 연구 주제와 무관한 스포츠 및 사건 사고 관련 영상은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전처리 후 최종 399개의 영상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중 연구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조회 수 상위 20편([표1] 참고)을 선별하여 댓글을 수집하였다. 해당 영상 콘텐츠에 달린 댓글은 총 23,376개였다. 이전 연구들(김은미, 2015, 이수범·서민혜, 2017)이 최대 50개의 댓글을 변수로 활용해야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힌바, 본 연구는 상위 20편의 댓글 중 각 5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총 1,000개의 댓글을 수집하였다. 이때 무의미한 호응이나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댓글은 제외하였다.

<표 1> 유튜브 댓글 분석 대상 영상 목록(조회수 순, 2022년 2월 14일 기준)

순서	제목	게시자	게시일	조회수	댓글수
1	러시아 여자가 한국인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딩글 Dingle	2020. 4. 8.	51,041	100
2	[한리_국제커플] 러시아 여자가 알려주는 '러시아 여자 꼬시는 방법~'	떡볶이 커플 [러시아 여자 리나]	2021. 7. 11.	88,167	316
3	러시아 여자와 꼭 결혼 해야하는 이유? "모두가 할 수 있어요!!"	CLAB	2021. 4. 24.	101,472	137
4	우크라이나 여자가 한국남자와 결혼하고싶은 이유	딩글 Dingle	2020. 7. 6.	114,198	263
5	러시아에서는 평범녀인데 한국에서 연예인? 러시아 여자가 크게 충격받은 이유	CLAB	2020. 7. 21.	123,688	417
6	돈 때문에 국제결혼하는 우즈벡 여자를 욕하는 사람들, 출산 문화(우즈베키스탄 국제커플)	우즈벡 라이프 UZBEK LIFE 우라 티비	2020. 4. 13.	144,552	578
7	러시아 여자와 결혼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 TOP5	딩글 Dingle	2021. 1. 28.	160,219	358
8	여기선 이게 합법?한국에선 상상못할 충격의 문화, 러시아 여성의 고백(외국인 인터뷰)	channel CKOONY	2019. 10. 26.	524,580	489
9	러시아 여자와 꼭 결혼해야 하는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리아나TV	2021. 3. 6.	531,585	1,735
10	한국남자 좋다고 하는 러시아여자를 조심하세요	태호TV_TAEHOTV	2018. 12. 30.	555,493	729
11	벨라루스는 미녀의 나라? 직접 가서 확인해봤습니다. 호기심에 떠난 세계여행 [벨라루스 여행 1편] - 세계일주 용진캠프	세계일주 용진캠프 [여행하는 Yongzin]	2019. 4. 27.	628,232	419
12	[러시아 반응] 길거리에서 오그라드는 멘트로 러시아 여자 변호 따기 [RyJoon]	라이준 [소련 라이프] Soviet Life	2020. 9. 30.	639,646	838
13	한국이 인정한 러시아미녀라고요? 러시아 여자가 충격을 제대로 받은 이유	CLAB	2020. 4. 9.	959,474	1,601
14	(ENG)우크라이나 미녀들이 말하는 한국여자가 부러운이유 TOP7	딩글 Dingle	2019. 11. 1.	1,012,938	2,116
15	남자가 없어 고통받는 러시아 여자에게 한국이 천국인 이유	어썸 코리아 Awesome KOREA	2020. 10. 25.	1,042,006	722
16	우즈벡 엄마가 딸의 한국 남친 집에 하룻밤 머물고 바로 결혼을 허락한 이유	어썸 코리아 Awesome KOREA	2021. 4. 29.	1,092,029	506
17	【 변호 따이고 싶은 한국남자들이여 우크라이나로 】우크라이나 Ukraine Travel	박진우[JINU]	2021. 11. 23.	1,598,291	3,135
18	"우크라이나에선 김태희가 받을간다고요...?" 우크라이나 미녀 반응	CLAB	2019. 6. 8.	1,600,035	3,381
19	러시아 미녀들과 사귀기 전 알아야 될 사실들.. 미녀들의 충격적인 발언?	딩글 Dingle	2021. 1. 28.	2,287,045	3,763
20	미녀가 받을 가는 나라? 중앙아시아 미녀가 말하는 진실	CLAB	2020. 12. 19.	3,237,624	1,773

(2) 키워드 빈도 및 토픽모델링 분석

앞서 수집한 영상의 제목과 댓글을 분석하기 위하여 키워드 빈도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였다. 우선 399개의 영상 제목과 그중 20편의 영상에서 추출한 1,000개의 댓글의 전처리 작업과 형태소 분석으로 단어를 정제한 후 키워드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해당 단어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위 빈도수 50개의 단어를 추출해 관련 주제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소재를 유추했다. 나아가 전처리한 단어를 대상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델에 근거한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였다. 우선 사전에 토픽 개수를 정하기 위해 혼잡도를 집계한 결과, 영상 제목의 경우 4개 전후로, 댓글은 5개 전후로 혼잡도 감소 폭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상 제목은 4개의 주제로, 댓글은 5개의 주제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여 각 토픽별 빈도수 상위 15개 단어를 정리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3) 프레임 분석

프레임 분석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여성혐오 프레임과 외국인 수용성에 관한 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표2 참조). 여성혐오 프레임에는 안드레아 드워킨(Andrea Dworkin)이 제시한 여성혐오적 여성 이해의 두 가지 모델인 '농장모델로서 여성 프레임', '사창가모델로서 여성 프레임'을 제시했다.⁷⁾ 본 논문은 남성성에 대한 묘사를 구체화하기 위해 남성을 특권적인 위치에 놓고 남성을 표현하는 '남성중심주의 프레임'을 추가했다. 외국인 수용성에 관한 프레임은 채영길(2010)의 연구와 이수범·서민혜(2017)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일부 활용하여 '국민민족적 프레임', '인종차별적 프레임'으로 구분했다. 분석 단위는 개별 댓글이며, 한 댓글에 두 가지 이상의 프레임이 포함된 경우 지배적인 프레임 하나만 적용하여 코딩했다(박기수, 2011; 이수범·서민혜, 2017). 제시한 프레임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제목과 댓글에 대해 '기타'로 분류했다.

7) 지식생산의 주체로서 남성은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를 규정하면서, 사회적 남성과 여성, 즉 젠더를 구성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러한 남성중심적 지식구조에서 생물학적 여자는 남자에게 동등한 개별적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여자-집단'으로만 존재한다. 남자들은 여자의 가치를 개인인간에서 찾지 않고, 생물학적 여자 집단에만 그 가치를 부여한다. 안드레아 드워킨(Andrea Dworkin)은 여자-집단으로서 여자는 농장모델(farming model)과 사창가모델(brothel model)로 나뉘어 존재 이유와 사회 내 역할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이때 '농장'과 '사창가'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농장'이란 용어는 여자의 생물학적 기능을 강조하여 여자의 전형적인 가치는 '번식'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사창가'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이어서 일상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음악, 스포츠, 광고, 영화, 드라마, 포르노그래피 등에서 발견될 수 있는 여성이 성적 대상화·상품화되는 모든 통로를 의미한다(강남순, 2020; Andrea Dworkin, 1983 참고).

<표 2> 외국 여성에 대한 프레임

구분	프레임		내용
1	여성혐오 (Misogyny)	농장모델로서 여성 (farming model)	- 여성을 생물학적 기능 즉, 출산·양육·가사 등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규정 - 남성을 위한 연애 및 결혼 대상으로 묘사
		사창가모델로서 여성 (brothel model)	- 구소련권 여성을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규정 - 한국 여성보다 연애 및 결혼에 적합하다고 표현
		남성중심주의 (androcentrism)	-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존재로 규정하여 여성의 외적 요소(외모, 태도, 옷차림 등)를 통해 여성다움을 규정 - 여성을 성적 대상화·상품화 대상으로 규정, 열등하고 위험한 존재로 묘사
2			- 남성을 세계의 의미, 사회적 관계 구성의 특권적 위치에 놓는 시각 - 남성을 능동적이고 이성적인 주체로, 여성을 수동적이고 감정적인 객체로 묘사
3			- 한국사회 발전 및 민족적 특성 고양시킬 수 있는 도구적 집단으로 묘사 - 주류사회와의 관계, 질서 유지를 중시하고 주류사회에 통합(integration) 또는 흡수(Assimilation)를 강조
4		민족주의 (Nationalism)	- 출신지, 국가, 민족적 차이를 경제적 지위와 문화적 차이에 따라 서열화하여 소수자와 다수자의 위계 강조 - 백인화된 황색인종으로서 한국민족의 우수성 강조하고 서구의 가치를 높게 사고 비서구의 가치를 저급하게 묘사 - 선진국과 후진국을 인종으로 구분
5		인종(차별)주의 (Discrimination)	

여성혐오 프레임에서 ‘농장모델로서 여성 프레임’은 여성을 출산·양육·가사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여성이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프레임이다. 이러한 프레임에서 외국 여성은 남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연애 및 결혼 상대자로 묘사된다. 외국 여성과의 연애 및 결혼 사례, 연애 및 결혼 상대자로서 외국 여성과 한국 여성 간 비교, 문화권별 여성의 남성에 대한 태도 등을 농장모델로서 여성 프레임의 맥락에 속한다고 분류했다.

“김태희가 발맨다는 우크라이나 여자의 모든 것 그리고 만나는 법”,
 “러시아 미녀들과 사귀기 전 알아야 될 사실들.. 미녀들의 충격적인 발언”
 “러시아 여자와 결혼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 TOP5”
 “러시아 여자들과 한국 남자들 국가적 차원에서 결혼 시켜주면 좋겠다”
 “역시 장모님의 나라 러시아군요.”
 “똑소리나게 똑똑한리아나 말도정말조리있게하고 살림도 남편한테잘할거같아요”
 “이 정도면 한국여자만 가사분담을 요구하는건가?”

‘사창가모델로서 여성 프레임’은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존재로 규정하며 여성의 외적 요소(외모, 태도, 옷차림 등)를 통해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여성을 ‘동료 인간’보다는 성적 대상화·상품화하여 열등하고 위험한 존재로 부각하는 여성혐오 프레임이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이나 성격을 평가하는 경우, 남성이 구성한 상황에서의 여성의 태도와 반응, 여성을 성적 놀릿감으로 치부하는 경우 혹은 꽃뱀 서사를 통해 여성을 남성을 유혹하고 배신하는 존재로 묘사하는 경우 등을 사창가모델로서 여성 프레임 맥락에 속한다고 보았다.

“25살이 넘으면 노처녀, 30살이 넘으면 할머니? 러시아 미녀들의 진실”

“우크라이나 미녀랑 3분만에 친해지는 법”

“한국남자 좋다고 하는 러시아여자를 조심하세요”

“우즈베키스탄의 뜨거운 밤을 즐겨보자(지난번 밤문화는 예고편)”

“이쁘는데 왜이렇게 솔직해. 어쨌든 매력있네요.”

“우리나라는 진짜 엘프같고 인형같은 느낌 선호하는거같아여”

“찬양하라 아름다운 슬라브의 여인들을.....신이 빛은 최고의 작품....아~^^”

‘남성중심주의 프레임’은 남성을 세계의 주체로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하고 보존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특권적인 위치에 놓으며, 수동적, 감정적, 복종적이고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여성을 남성이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은 앞선 여성에 대한 두 시각에 교차하는 지점이 있으나 자료 내에서 남성 자신을 묘사할 때 나타나는 특성에 주목하여 따로 분류하였다. 남성의 경제력과 외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 주체적인 입장으로 남성의 역할, 한국남성의 장점을 부각하는 경우 남성중심주의 프레임에 포함시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인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한국남자의 특성”

“(국제커플)한국남자와 결혼하면 로또1등하고 같은거 맞아 ...”

“미녀의 나라 벨라루스에서 원하는 남편의 월급?”

“러시아 여자는 데이트비용 한푼도 안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연애만하면 남자 등골 빠지는 문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잘생기지 않아도 일단 한국인이면 호감도 급상승에 키도 175만 되고 깔끔하게 입으면(그냥 한국에서 입던 대로) 연예인 대접 받는달”

‘국가민족적 프레임’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의 발전 및 민족적 특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도구적인 집단으로 묘사하며, 한국의 질서와 문화 등 한국적 가치를 중시하여 한국 사회로의 통합 또는 흡수를 강조하

는 프레임을 의미한다.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언급,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 한국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는 경우를 국가민족적 프레임 맥락에 포함한다고 분류했다.

“러시아 여자가 한국인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한국인이 외국인 만나자마자 케이팝을 연주하면 그 반응은..?”

“러시아 여자가 직접 만든 간장계장 과연 맛있을까?”

“이런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 볼셰비키 언니들을 다보네”

“여러분! 몽골국경에서 반도까지 현재 블라드보스톡은 당연하고 그외 베링해까지 고려땅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한국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언제나 예쁜 리아나 아가씨 ^^”

‘인종차별적 프레임’은 출신지, 국가, 민족적 차이를 경제적 지위 및 문화적 차이에 따라 서열화하여 소수자와 다수자의 위계를 강조하는 프레임을 뜻한다. 특히 이 프레임은 백인화된 황색인종으로서 한국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거나 서구의 가치를 높게 사고 비서구의 가치를 저급하게 묘사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외국인을 저급하게 묘사하는 경우, 인종과 관련한 맹목적인 비난, 선진국과 후진국 인종으로 분류하는 경우 등을 인종차별적 프레임 맥락에 속한다고 보았다.

“여기선 이게 합법?!한국에선 상상못할 충격의 문화, 러시아 여성의 고백(외국인 인터뷰)”

“우즈벡 여자사람은 왜 한국에서 살고 싶을까?”

“왠지 러시아는 외모보다 싸움실력이 더 중요할 것 같은 느낌”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애들이 한국여자 헌팅하는 모습 상상해봐라. 딱 그 상황 입ㅋㅋ”

“올라씨는 동유럽쪽 슬라브계열 혈통인거 같고, 리아나씨는 우리와 비슷한 몽골계 혼혈같네요.”

4. 연구 결과

1) 주요 키워드 분석

(1) 영상 제목 키워드 분석

〈표 3〉 영상 제목 상위 키워드

순위	내용	순위	내용
1	여자	26	국제
2	러시아	27	나라
3	우크라이나	28	한러국제커플
4	한국	29	소개
5	우즈벡(우즈베키스탄)	30	만남
6	국제커플	31	사랑
7	러시아여자	32	문화
8	이유	33	여자들
9	미녀	34	한국어
10	여자친구	35	한국인
11	남자	36	방법
12	한국남자	37	사귀는
13	처음	38	충격적
14	반응	39	진실
15	결혼	40	김태희
16	여성	41	국제부부
17	벨라루스	42	한국여자
18	생각	43	좋아할
19	국제결혼	44	연애
20	여행	45	소녀
21	데이트	46	영상
22	만나	47	현실
23	카자흐스탄	48	모델
24	미녀들	49	좋아하는
25	선물	50	아내

유튜브에서 구소련권 여성을 주제로 한 영상의 제목의 상위 키워드는 [표3]과 같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여자’이며, 국가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국’, ‘우즈벡(우즈베키스탄)’ 순으로 언급되었으며 ‘벨라루스’, ‘카자흐스탄’도 자주 등장하였다. 뒤이어 ‘국제커플’, ‘여자친구’, ‘결혼’, ‘국제결혼’, ‘데이트’, ‘한러국제커플’, ‘국제부부’, ‘연애’, ‘아내’ 등 결혼 및 연애와 관련한 키워드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녀’, ‘미녀들’, ‘김태희’, ‘모델’ 등 외모를 묘사하는 표현도 상위 키워드에서 발견되었다. 한편 ‘한국’, ‘한국남자’, ‘한국어’, ‘한국인’, ‘한국여자’ 등 한국과의 문화 비교, 한국인의 태도 및 관점을 다루는 주제가 영상의 소재로 많이 다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영상 댓글 상위 키워드

순위	내용	순위	내용
1	러시아	26	한국인
2	한국	27	미인
3	여자	28	지금
4	우크라이나	29	역시
5	이쁘다(예쁘다)	30	한국남자
6	사람(들)	31	보고
7	남자	32	예뻐
8	여자들	33	외국
9	나라	34	엄청
10	결혼	35	문화
11	우리나라	36	러시아여자
12	얼굴	37	이쁜
13	생각	38	무쌍
14	만나	39	좋아하다
15	영상	40	아닌
16	기준	41	이유
17	외모	42	사랑
18	예쁜	43	김태희
19	한국말	44	서양
20	여성	45	일단
21	남자들	46	외국인
22	미녀	47	한국어
23	한국여자	48	잘생긴
24	부럽다	49	장모님
25	어디	50	우즈벡

(2) 영상 댓글 키워드 분석 (단위: 건)

[표4]는 유튜브에서 구소련권 여성을 주제로 한 영상의 댓글에서 자주 나타나는 상위 키워드이다. 상위 조회수 20편의 영상의 댓글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키워드는 ‘러시아’, ‘한국’, ‘여자’ 순서이며, 국가별로 ‘러시아’, ‘한국’, ‘우크라이나’, ‘우즈벡’ 순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결혼’, ‘만나’, ‘장모님’ 등 연애나 결혼과 관련된 단어가 상위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쁘다(예쁘다)’, ‘얼굴’, ‘외모’, ‘미녀’, ‘미인’, ‘예뻐’, ‘이쁜’, ‘무쌍’, ‘김태희’, ‘잘생긴’ 등의 명사와 형용사가 자주 등장했는데, 앞선 영상 제목의 상위 키워드보다 더 다양한 외모 묘사 표현이 발견되었다. 특히 영상 제목과 댓글의 상위 키워드에 ‘김태희’라는 특정 배우의 이름과 ‘장모님’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을 통해, 구소련권에 대한 ‘김태희가 받을 때는 나라’, ‘장모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일반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제목의 키워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한국말’, ‘한국여자’, ‘한국인’, ‘한국남자’, ‘한국어’ 등 한국과의 문화 비교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조하고 한국을 집단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 토픽모델링 분석

(1) 영상 제목 토픽모델링 분석

〈표 5〉 영상 제목 토픽모델링

구분 순위	1) 우크라이나 여성과의 연애·결혼	2) 우즈베키스탄 여성과의 연애·결혼	3) 러시아 여성과의 연애·결혼	4) 한국-러시아 국제커플
1	우크라이나	우즈벡	러시아	여자
2	여자	우즈베키스탄	한국	러시아
3	만남	러시아	국제커플	한국
4	한국	여자	러시아여자	결혼
5	사랑	국제커플	이유	방법
6	문화	여자친구	미녀	한러국제커플
7	장모님	남자	남자	알려주다
8	결혼	국제결혼	한국남자	꼬시다
9	여자친구	생각	결혼	러시아여자친구
10	데이트	연애	사귀다	현실
11	여자친구	선물	좋아하다	필요
12	국제	여행	미녀들	방문
13	소개	결혼	사실들	천국
14	김태희	만남	충격적	소개팅
15	미녀	천국	소개팅	모두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영상의 전체 네트워크 주제 및 패턴을 찾아내 유사한 의미를 형성하는 키워드를 군집화해 토픽을 선정했다(표 5) 참고). 주요 토픽은 ‘우크라이나 여성과의 연애·결혼’, ‘우즈베키스탄 여성과의 연애·결혼’, ‘러시아 여성과의 연애·결혼’, ‘한국-러시아 국제커플’ 등으로 범주화했다. 빈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주로 해당 국가 여성과 연애 및 결혼을 한 사례, 해당 국가 여성에 대한 인터뷰 형식으로 영상 주제가 구성되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이 자주 등장한 국가로 꼽혔다. ‘러시아 여성과의 연애 결혼’과 ‘한국-러시아 국제커플’과 관련한 토픽은 서로 연관도가 높았으며 주로 ‘국제커플’, ‘한러국제커플’, ‘사귀다’, ‘소개팅’ 등 러시아인과 한국인의 이성적 만남에 관심을 갖는 주제가 다뤄졌다. ‘우크라이나 여성과의 연애·결혼’과 관련하여 ‘장모님’, ‘김태희’ 등의 단어가 상위어에서 발견되었으며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이미지가 미디어에서 자주 사용된 표현과 함께 고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과의 연애·결혼’과 관련하여 ‘국제커플’, ‘여자친구’, ‘국제결혼’, ‘연애’, ‘결혼’과 같은 단어가 다수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해당 국가 여성을 집단화하여 연애 및 결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영상 댓글 토픽모델링 분석

〈표 6〉 영상 댓글 토픽모델링

구분	1)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관심	2) 문화권 비교	3) 여성의 외모에 대한 평가	4) 여성의 태도에 대한 평가	5) 한국 여성에 대한 반감
1	여자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한국
2	영상	우크라이나	남자	너무	남자들
3	사람	여자	여자들	귀엽다	한국여자
4	매력	남자	미녀	공부	먼저
5	재밌다	한국	우리	좋은	세상
6	좋아하다	생각	대부분	세계	떠나
7	한국말	아니	배우	솔직	러시아여자
8	한국남자들	한국남자	여성들	외국여자	바라다
9	조합	다르다	예쁜	생각	매너
10	문화	보수	엄청	이유	자기
11	행복	귀여운	결혼	천사	배려
12	번호	이미	사귀다	사랑	외국인
13	평범	서양	다정	외모	한국인
14	항상	여권	유럽	방송	여성
15	아주	희망	예뻐	여권	조건

조회수 상위 20편 영상의 글을 추출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6]와 같다. 주요 토픽은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관심’, ‘문화권 비교’, ‘여성의 외모에 대한 평가’, ‘여성의 태도에 대한 평가’, ‘한국 여성에 대한 반감’ 등으로 범주화했다.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관심’에 관한 토픽에서 ‘한국말’, ‘한국 남자들’, ‘문화’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했으며 ‘재밌다’, ‘좋아하다’와 같은 형용사 표현도 다수 발견되었다. ‘문화권 비교’로 범주화된 토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국’, ‘서양’과 같은 표현이 자주 나타났으며 타국가와 한국을 비교하거나 해당 문화권에 대한 인식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권’, ‘희망’과 같은 단어는 ‘여권을 들고 해당 국가에 가다’, ‘해당 국가가 한국 남자의 희망’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했는데, 해당 국가 여성을 집단화하여 이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여성의 태도에 대한 평가’는 상호 연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미녀’, ‘배우’, ‘예쁜’, ‘예뻐’, ‘외모’와 같은 외모에 대한 언급과 함께 ‘귀엽다’, ‘공부’, ‘솔직’과 같이 성향에 관한 단어가 함께 상위어로 등장했다. 영상 댓글에서는 ‘한국 여성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는 다수의 댓글도 범주화되었다. 가령 ‘매너’, ‘배려’, ‘조건’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했는데 구소련권 여성과 한국 여성의 외모 및 성격을 비교하거나 한국 여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표현이 발견되었다.

영상 제목 토픽모델링 결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별로 범주화된 반면, 영상 댓글 토픽모델링 결과는 문화적 범주와 여성에 대한 관점으로 나누어 구체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상에 등장하여 발화하는 주체는 주로 여성이었는데, 영상 댓글의 토픽모델링 결과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주체는 주로 남성임을 유추할 수 있다.

3) 프레임 분석 (단위: 건(%))

(1) 영상 제목 프레임 분석

〈표 7〉 유튜브 영상 제목 프레임 분류

구분	대분류	소분류	빈도 (비율)
1	여성혐오	농장모델로서 여성	99 (24.8%)
2		사창가모델로서 여성	110 (27.6%)
3		남성중심주의	12 (3.0%)
4		민족주의	96 (24.1%)
5		인종(차별)주의	33 (8.2%)
6		기타	49 (12.3%)
합계			399 (100.0%)

프레임 분석 결과, 영상의 제목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관찰된 프레임(〈표 7〉 참고)은 여성혐오 프레임(55.4%)이었으며, 그 중에서 '사창가모델로서 여성 프레임'이 27.6%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사창가 모델로서 여성 프레임으로 구성된 제목에서는 주로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외모 특성을 강조하거나 남성이 구성한 상황에서 여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다루는 경우, 여성을 성적 대상화·상품화 대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러시아 여자는 아기 낳으면 혹 간다고!? 핫 러시아 맘의 몸매 꿀팁!”

“[女탐구] 러시아 여자가 야하게 입고 다니는 이유 Part.2”

“[국제커플] 소주2병 마시고 취해서 애교가 나오는 우크라이나 여자친구”,

“[사연모음] 싸장님 더해줘요 러시아여자의 격한 몸부림 (#썰#사연)”

“우즈베키스탄 가라오케 아가씨 미모와 서비스 수준은?”

사창가모델로서 여성 프레임의 영상에서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남자 화자가 여자-집단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여자를 성적 대상화 한 사실을 무용담처럼 공공연하게 알리는 경우가 자주 등장했다. 남자의 시각에서 여자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여자는 남자를 ‘유혹하는 존재’이자 남자에게 성적 즐거움을 주는 ‘성적 놀이대상’이라는 관점이 제목에서 드러났다. ‘꽃뱀 서사’ 방식을 동원해 여자를 위험한 존재로 묘사하는 영상 제목도 있었다.

“러시아 여성을 소개 받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보세요(심경고백)”

“한국남자 좋다고 하는 러시아여자를 조심하세요”

“국제결혼 우즈벡마담이 시집와서 도망간사연”

농장모델로서 여성 프레임도 24.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구소련권 여자가 한국 남자에게 바람직한 연애 및 결혼 상대자로 적합하다는 시각에서 여자의 생물학적 기능인 출산, 양육과 가사 역할을 하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사례를 소개하거나 구소련권 여자와의 연애 및 결혼 방법을 알리고, 이들이 한국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다루는 영상이 빈번하게 관찰됐다.

“러시아 여자와 꼭 결혼 해야하는 이유?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첫 데이트에 자녀 계획부터 하는 우크라이나 여자친구”

“러시아 여자와 사귀면 좋은 점(feat.한국남자 경험담)”

“우크라이나 결혼과 연애에 관한 10가지 질문과 답변 솔직한 토크쇼”

“돈 때문에 국제결혼하는 우즈벡 여자를 욕하는 사람들, 출산 문화(우즈베키스탄 국제커플)”

“호된 K-시집살이?! '벨라루스 미녀' 종갓집 며느리의 운명은”

이러한 프레임에서 여자는 ‘부인-남편’ 관계 속에 놓여지는데, 이러한 제도적 관계 속에서 여자는 감정적·경제적으로 남자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강남순, 2020). 구소련권 여자를 전통적인 순종적인 여성상으로 규정하여 외모뿐만 아니라 태도를 찬양하는 제목도 발견됐다.

“김태희가 발매는 우크라이나에서 외모와 내면 모두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다”

“[러시아반응]한국결혼 비용듣고 러시아여자랑 결혼하라는 엘프녀들”

앞선 사창가모델로서 여성 프레임과 달리 농장모델로서 여성 프레임은 구소련권 여성을 멸시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두 모델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자들이 설정한 여자에 대한 ‘가치’를 담고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강남순, 2020). 즉 사창가모델의 여자가 남자를 위협에 빠뜨리는 ‘위험한 존재’로 묘사된다면 ‘아내-여자’는 남자의 통제 하에 있는 ‘열등한 존재’라는 여성혐오의 전형이 드러난다. 두 모델에서 생물학적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며 남자는 지배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프레임은 여성혐오 프레임의 범주에 속한다. 두 가지 여성을 바라보는 모델과 마찬가지로 남자를 세계의 주체로 특권적인 위치에 놓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여자를 이끄는 존재로 묘사하는 여성혐오 프레임으로서 ‘남성중심주의 프레임’은 3%의 비율로 발견되었다.

“러시아 여자가 말하는 한국 남자를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5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인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한국남자의 특성”

“우크라이나 미녀들은 한국남자면 무조건 좋아할까? 반응 실화나”

민족주의 프레임(24.1%)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한국인, 한국 문화에 대한 찬양이나 외국인이 한국 문화 적응 정도를 묘사하거나 한국 문화에 대한 ‘타자’로서의 외국인의 반응을 관찰하는 영상이 주를 이뤘다.

“러시아 여자가 한국인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한국말하는 외국 미녀를 찾아라”

“비빔밥 만들어 먹는 우즈베크 여자들의 반응, 한국에서는 첫데이트”

“한국에 오자마자 인생이 180도 바뀐 이유?! 한국을 사랑한 벨라루스 미녀”

“러시아 여자가 한국에 살면서 생기게 된 습관들”

“[국제커플] 감자전에 막걸리 야무지게 먹는 우크라이나 여자친구”

이와 관련하여 노영은·류용재(2020)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반응을 보여주는 영상에서 한국이라는 민족주의적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국인과 타자를 ‘구별 짓기’하는 측면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김명혜(2012)는 한국과 연관한 미디어가 공식적으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나 여전히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주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층이 시청하는 영상 매체에서 다수의 구소련권 출신 출연자가 자발적으로 한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통념적으로 기성 세대의 전유물이었던 민족주의 담론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사하게, 왜곡된 방식으로 재생산된다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노영은·류용재(2020)),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 담론이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외국인에게 내면화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해당 영상이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실제 출신 국가의 문화보다는 출연자가 한국 문화에 얼마나 적응하는가를 위주로 콘텐츠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수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종(차별)주의 프레임(8.2%)은 출신지역, 국가, 민족적 차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적인 차이를 국가 및 문화권의 차이로 해석하는 개인주의적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러시아 여자가 한국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feat. 갑질 미국놈)”

“[국제커플] 한국여자와 러시아여자의 차이점 5 얘기해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자와 러시아 여자의 차이”

“오해와 진실! 스킨헤드가 아직도? 러시아 여자는 다 예쁘다?”

인종차별 프레임을 구성한 영상 제목은 주로 국가 및 민족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여자/여성의 차이를 부각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구소련권 국가를 열등하다고 보고, 해당 문화권의 여성을 한국인이 교화·지도할 수 있는 선진화된 존재로 묘사하는 등 인종(차별)주의 프레임과 민족주의적 프레임이 동시에 나타나는 영상 (예: “우즈베크 여자사람은 왜 한국에서 살고 싶을까?”, “사회생활이 하고싶은 아내, 우즈베크 현실은 “여자가 감히 어딜”)이 있었다.

여행 및 일상을 공유하거나 한국 생활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는 등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기타에 분류했다(예: “러시아 여자 한국 남자의 대충 레시피”, “[한러_국제커플] 러시아 엄마생일 '서프라이즈 대작전'”, “평범한 한국남자와 평범한 러시아여자의 모스크바 여행”, “우크라이나 여자, 루츠크 도시에 산책”).

(2) 영상 댓글 프레임 분석

〈표 8〉 외국 여성에 대한 프레임 분류

구분	대분류	소분류	빈도 (비율)
1	여성혐오	농장모델로서 여성	272 (27.2%)
2		사창가모델로서 여성	399 (39.9%)
3		남성중심주의	74 (7.4%)
4	민족주의		126 (12.6%)
5	인종(차별)주의		61 (6.1%)
6	기타		68 (6.8%)
합계			1000 (100.0%)

댓글 프레임 분석 결과, 여성혐오 프레임이 7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에서 사창가모델로서 여성 프레임이 3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창가모델로서 여성 프레임에서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이 가장 많았다.

“개인적으로 러시아 여성이 지구상 최고의 미녀들이 많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왜 정작 한국에 오는 러시아인들은 예쁜사람이 많지 않을까..?”

“러시아 경찰,군인 개귀엽네”

“러시아 제국 여자들은 이쁘구나...”

“로씨아여자들은 애낳으면 우리나라 할머니정도로 변하던데요”

“우리 입장에선 피부 하얗고 늘씬하고 비율도 좋은데 유니폼입으면 일단 와~~하는거지..”

“우크라이나가면 김태희가 발매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거자나”

아시아인/동양인을‘우리’라고 표현하여 대상화된 구소련권 여성의 외모가 아시아인/동양인이 선망하는 외모라는 점을 강조하는 댓글도 있었다.

“다닐로바는 우리가봐도 약간 아시아인들이 좋아할 요소가 많은 얼굴임”

“발렌티나도 예쁘지만 안젤리나는 진짜 거의 세계최고 미녀급이라고 보는데. 이해 되는 게 호주 있을 때도 동양인이 다 예쁘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호주 친구는 정작 호주 사람들은 평범하다고 하는 거 보고 놀랐었지.”

“보통 서양인들과 동양인들 남자들이 좋아하는 동양여자 얼굴 스타일이 다른것과 마찬가지로인가봐요”

여성을 ‘성적 놀이대상’이자 ‘유혹하는 존재’로 표현하는 댓글(예: “20년전 국민관 한국관 에서 반쪽이 비키니입고 기동위에서 춤추는 러시아 미녀덕분에 한국남자들의 선입견이 시작되었다는 소문도.....”)이나 외모와 태도에 빗대어 한국과 구소련권 여성을 비교하는 댓글(예: “러시아 10년살다운 남사친이 한국 와서 여자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함”)도 있었다.

농장모델로서 여성 프레임(27.2%)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장모델로서 여성프레임에서 구소련권 여자-집단이 남성을 위한 연애 및 결혼 대상으로 묘사된 댓글이 가장 많았다.

“가즈아! 장모님의 나라 러시아로!”, “저도 러시아 여자분과 국제결혼 괜찮을거같네요”
 “러시아 여자분 만나고싶네요. 근데 러시아말을 모르니 한국말 할 수 있는 분이셨으면”
 “여권 발급 하러간다 나도 희망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 아들들도 러시아 며느리 데려오라고 해야 쟈네”

이를 통해 구소련권 여자가 결혼/연애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영상에 대해 수용자가 동조하는 댓글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장모님의 나라’, ‘여권 발급’, ‘엘프녀의 나라’와 같은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고, 해당 문화권에 대한 집단적인 밈(meme)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장모델로서 여성 프레임에는 해당 문화권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발견되었다. 가령, 구소련권 여자가 한국의 민족적 특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도구적 집단으로 묘사되는 민족주의적인 프레임이나 백인이라는 서구적 가치를 가진 구소련권 여성을 우수하다고 표현하는 인종(차별)주의 프레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한국남자와 러시아 미녀들의 조합 참 좋은거 같다. 2세도 이쁠거 같음. 그래, 제발 중국이나 베트남 만나지말고 이쁜 러시아 언니들 만나자~!”

“러시아 여자가 한국의 미래다”

“저런 개념과 관념이 일상에 만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백인녀라면 두말할것없이 결혼해서 열이고 백이고 힘닿는데까지 애 가지고 싶다.”

한편 가부장적 질서를 강조하고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댓글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의 이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영상 제목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수용자의 댓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가령 한국 여자와 구소련권 여자를 비교하여 한국 여자의 외모나 행동, 사고방식을 비난하는 댓글이 있었다. 또한 구소련권 여자를 가부장적 질서에 적합한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빗대는 경우도 있었다.

“러시아를 떠나서 외국여자와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한국여자를 싫어하는 이유를 러시아분들이 얘기

잘해주셨네”

“러시아 배구선수들 못봤냐 심지어 배구선수도 다 예쁘다. 우리나라는 오크들 죽어라 운동만”

“조선녀자들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요즘 한국남자들은 아무리 여자가 예쁘고 착하다고 해도 페미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전 세계중에 유일한 여성부있는 나라 사는거 다들 알잖아 새삼스럽게 그래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제일 고귀한 존재야 소인 한국 여성분들에게 감히 눈길도 절대 마주치지 않겠습니다”

“러시아는 서양이지만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 있구나”

“러시아 여성들이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예쁜 것을 넘어서, 착하고 순수하고 한국 옛날에 느꼈던 감성.. 참하다고 느껴지는”

“개방적이고 가벼운 한국여자들보다 보수적이고 조신한 러시아여성들이 갑자기 좋아질려구한다 이를 어쩐담!”

“러시아여성들 참 순수해보인다 옛날 우리 어머니 젊은시절 감성이 느껴지네요”

남성중심주의 프레임은 7.4%의 비율로 나타났다. 남성중심주의 프레임은 남성을 세계의 주체적 존재로 공적영역에 속한 존재로, 여성을 사적영역에 속한 수동적인 존재로 자연화하고, 남성의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강조한다(예: “남성은 문명을 만들고 여성은 문명을 누립니다. 여성이 당신을 좋아하는 건 이미 손익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남성중심주의 댓글에서는 한국 남자가 다른 나라 남자보다 우월하다는 민족주의 프레임이 혼합된 댓글(예: “한국남자 인기있는건 사실이긴해요~”, “세계에서 한국 남자가 메리트 있는 이유는 배려심 있고 젠틀해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고마운 방탄도 큰 몫)”)이 나타난 반면에, ‘우월’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남성의 종속감과 열등감이 반영된 댓글도 다수 발견되었다.

“모든 기준은 준수한 외모의 평균 이상의 스펙을 얘기하는거니,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세요.”

“와이프가 러시아인이고 모델 출신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여자 만나보았는데 키, 얼굴, 외모, 지능, 비전, 능력 모두 봅니다.”

“이런거 보고 환상 가지면 안됩니다. 잘생긴 사람만 해당됩니다.”

댓글 분석에서 민족주의 프레임(12.6%)은 영상 제목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민족주의 프레임이 댓글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프레임 분석에서 하나의 댓글은 하나의 프레임에만 분류했는데, 여성혐오 프레임과 인종(차별)주의 프레임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우 민족주의 프레임으로 분류하지 않았다(예: “러시아 여자들 생활력 강하던데, 한국으로 모셔오면 알아서 일하고 가정생활 잘할 듯”, “간단한건 러시아 여성분들 한국와서 한국남자랑 결혼하면 한국거주가능함. 그러니 한국와주세요”(농장모델로서 여성프레임에 분류), “러시아 여성분들은 한국 많이 왔으면 좋

겠네요. 무슬림들은 너무 싫어요”, “어느 나라든 완벽한 나라는 없지만 최소한 러시아 중국 북한 남미 동남아시아 빼고 한국이 그나마 그나마 좋다.”(인종(차별)주의 프레임에 분류). 민족주의 프레임에서 영상 출연자의 한국어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평가하며 출연자를 한국인으로 묘사하는 댓글이 다수 있었다.

“늘봐도 한국말도 잘하고 해서인지 한국사람으로 순간착각도 하게돼요”

“대체적으로 러시아분들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은거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러시아나 구소련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어 발음이나 억양이 매우 좋아요.”

인종(차별)주의 프레임(6.1%)은 백인/서양인의 외모를 가진 구소련권 여성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도(예: “백인 여자가 제일 아름다운건 사실이긴 하지”, “동양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서양인 미모 몸매 못 따라 갑니다”), 국가, 민족적 차이를 경제적 지위, 문화적 차이에 따라 서열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일본 2.러시아 3.마케도니아.....7.베트남”

“1980년대 한국 = 러시아”

“전세계에서 슬라브는 모델로 유명하지만 정작 슬라브들한테 라틴같은 강렬한 인상을 최고로 쳐준다 함”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성인이 된 유럽국 여자분들이 Best죠!!”

“아프리카 어딘가는 스모선수체형 여자가 최고 미인이라던데..”

한편, 역 오리엔탈리즘 프레임(예: “동양인(중국 빼고)을 싫어한 거 아니었나?? 뭐, 러시아 아가씨들 상당수가 K팝 음악이나 영화 좋아할수도 있긴 있는데,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격하게 환영하고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금지초문.”, “이 영상에서 러시아, 혹은 서구권에 대한 벽을 실감하셨을겁니다.”)도 발견되었다.

해당 국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거나(“러시아와 사이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유희의 목적으로 단순 호감을 표시한 경우(예: “유튜브 최고 너무 좋아요”, “스킵없이 영상을 다 본건 처음이네요”, “무거운 주제가 아닌 이런 가벼운 재미가 아주 개꿀잼이에요”)는 기타에 분류하였다.

5. 구소련권 여성 관련 담론의 세 가지 층위

1) 가부장제 답습을 위한 구소련권 여성 대상화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계급적 억압은

‘귀여움’이란 어구에 담겨 공개적인 억압보다 훨씬 더 투쟁이 어렵다.

- 술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 『성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Sex)』 중에서

여성혐오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고 주변적, 수동적 존재이며 동시에 남성을 유혹하는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을 의미한다. 구소련권 여성 관련 한국어 유튜브 콘텐츠는 영상 제목과 댓글 모두에서 이러한 여성혐오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논문에서 제시한 세 가지 프레임(사창가모델로서 여성 프레임, 농장모델로서 여성 프레임, 남성중심주의 프레임)이 영상 제목과 댓글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여성혐오 프레임을 포함한 영상은 적게는 몇백 회에서 3백 만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의 경우 적게는 수십 개에서 4,000개 달하며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대중적인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왜 유튜브 영상 제작자는 여성혐오 프레임을 공공연히 활용하고, 수용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가? 왜 구소련권 여성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형성했는가? 왜 그동안 이러한 영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는가?

우선 키워드 분석과 토픽모델링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소련권 여성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표현은 ‘미녀’, ‘데이트’, ‘결혼’, ‘여자친구’와 같은 긍정적인 범주에 속하는 단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를 몸매, 얼굴, 키와 같은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 규정하고, 한편으로 여성의 출산, 양육과 같은 돌봄 노동의 전담자로서의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을 하나의 개별적 인간으로 보지 않고 ‘여자-집단’으로 인지하여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여성혐오적 사고를 내포한다. 구소련권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상품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이러한 사창가모델의 전형을 보여주는 표현은 수용자에게 어떠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해당 문화권의 여성을 한국 남자의 연애와 결혼 상대로 묘사하는 농장모델의 전형성을 갖는 영상은 다수의 한국 남성의 찬양을 받으며 높은 참여를 이끌어낸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다수의 한국 남성은 구소련권 여성은 백인/서양인의 외모를 가진 ‘섹시하고 귀여운 여자’이거나, ‘어머니-자연’이라는 메타포에 부합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현신적인 여자’로 묘사하며 이에 부합하는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수용했다. 이에 더해 해당 영상에 참여하는 여성은 자연화된 젠더 관점에 동조하고 내면화하여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다수의 영상에서 구소련권 여성이 직접 등장해 한국인과의 연애, 결혼 경험에 대해 설명하거나, 한국 여성과의 비교를 서슴없이 하며 서로 다른 문화권의 여성이 자연스럽게 경쟁, 시샘과 질투의 대상으로 묘사되었다.

2) ‘우리’로 포섭된 구소련권 여성

민족주의와 젠더, 섹슈얼리티는 모두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우리’와 ‘그들’을 구분 짓는 방식을 통해 서로의 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타마르 메이어(Tamar Mayer), 『민족주의의 젠더 아이러니』 중에서

유튜브는 ‘국경을 넘는 플랫폼,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플랫폼’을 표방하며 국가별로 콘텐츠가 무한정으로 배포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통해 세계 어느 곳이나 콘텐츠를 제공하며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킨슬-페이반 2018). 그러나 이러한 범세계적인 플랫폼으로서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영상의 제목, 썸네일, 댓글 등에 사용되는 ‘언어’는 해당 유튜브 영상의 주된 사용자를 구분하고 주류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왔다.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주류 집단은 다양한 인종적·민족적 배경의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보며 타 국가와 민족, 개인의 존재를 의식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주류 집단의 언어로 전달하며 ‘우리’라는 집단의식을 형성한다. 초국적 온라인 공간인 유튜브에서 대중은 동일한 문화, 언어, 역사적 배경을 지닌 민족 집단을 규정하며 재영토화하며 ‘일상적 민족주의’를 재현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일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상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민족주의 담론은 인종(차별)주의와 결합하여 사람들의 실제 의식, 발화, 행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재생산된다. 인종주의 담론에서 ‘우리’는 인종, 민족, 국가, 동양이 모두 혼합한 지시어로 모호성을 갖는데 이는 특수한 국가인 ‘우리’와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세계인 ‘우리’를 모두 포괄하는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서로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빌리그, 2020[1995]).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인 같다’라는 댓글을 달며 ‘우리’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은 ‘그들’로서 구분 짓는다. 한편 이러한 담론 속에는 백인과 서구 문명을 높은 곳에 위치시키고 이외의 문명은 한국이 교화하고 지도해주어야 할 대상에 위치시키는 인종적 위계에 따른 민족주의적 시각이 자리한다.

구소련권 여성에 대한 대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민족주의 개념뿐만 아니라 ‘교차성’이란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페미니즘 연구에서는 유럽 중심적인 문화 제국주의 안에서 인종화에 수반되는 경험의 유사성을 주목하기 위해 ‘유색인종 여성(women-of-color)’이라는 용어를 도입했고, 그 과정에서 ‘교차성’ 개념을 동원했다. 교차성이란 성별, 계층, 인종, 민족, 계급, 섹슈얼리티, 종교, 외모 등의 사회적, 정치적 정체성의 측면이 결합하여 다양한 방식의 차별과 특권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을 일컫는다. 기존의 교차성에 관한 페미니즘 연구는 주로 백인 문화 헤게모니 안에서 인종화된(racialized) 개인들의 공통된 집단적 경험을 강조하는데, 이때 말하는 ‘인종화’ 경험이란 개인이 지닌 비서구 문화가 평가 절하되는 것, 지배적인(백인)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 ‘이중 의식’⁸⁾을 경험하는 것, 비인종화된 개인보다 더 유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 등을 포함한다(로스마리 퍼트남 통·티나 페르난디스 보츠, 2019). 즉 유색인종 여성의 경험은 가부장제뿐 아니라 인종 억압을 접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기존의 교차성 연구가 주로 미국과 유럽 중심의 백인 주류 문화를 기반으로 발달했음을 감안하여 한국 사회에 교차성 개념을 적용한다면 ‘인종화’란 한국의 지배적인 주류 집단 문화 속에서 외국인 여성이 느끼는 젠더와 인종, 문화적 차별에 따른 다차원적 억압으로 이해될 수 있다.

8) 인종 이론의 영역에서 윌리엄 두보이스가 『The Souls of Black Folk』(New York: Gramercy Books, 1994)에서 사용했던 용어인 ‘이중 의식’은 미국의 흑인들이(성별에 상관없이) 두 가지 다른 현상학적 정체성의 경험을 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윌리엄 두보이스는 ‘이중 의식’의 경험을 계속해서 자신이 두 개라는(즉 미국인이자 유색인종이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라 설명했다(로스마리 퍼트남 통·티나 페르난디스 보츠, 2019 참고).

유튜브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구소련권 여성은 대중들 사이에서 외형적으로 ‘백인’이자 생물학적으로 ‘여자’로 타자화된다. 영상의 제작자이면서 수용자인 지배적인 집단으로서 ‘우리’는 ‘한국인다운’ 의식을 당연하게 호소하고 수용한다. 그 과정에서 재현에 참여하는 구소련권 여성은 민족주의와 가부장제의 억압에 대해 대응하기보다는 순응함으로써 ‘우리’에 해당하는 지배 집단에 종속되고자 한다. 한편 구소련권 여성은 단순히 백인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슬라브인/구소련 여성으로 구체화 된 영역에 위치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소련권 국가는 여전히 한국인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국가일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이며 ‘비문명화’되고,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열등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국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배 집단으로서 한국 남성이 구소련권 국가 여성을 대상화하고 종속시키는 과정을 자연화하고 정당화한다. 이처럼 구소련권 여성은 ‘인종’과 ‘젠더’에 따른 이중적인 억압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남성이 만든 ‘우리’의 영역에 순응하며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가부장적 체제를 내면화한’ 구소련권 여성은 우대받고 인정받으며 ‘우리’에 포섭된다.

3) 여성혐오의 낙수효과와 남성성의 재생산

구소련권 여성 관련 유튜브 콘텐츠의 댓글 프레임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 해체에 대한 남자들의 위기감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성스러운’ 외적인 요소를 충족하며 ‘가부장제에 순응하는’가치관을 가진 구소련권 여자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연애·결혼의 상대자로 규정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구소련권 여자는 현재의 한국 여자와의 갈등을 회피하는 적절한 대안이라는 남성의 집단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여성혐오 문제와 전면화되고 있는 젠더-분리 및 갈등 양상에 대해 다수의 남성이 구소련권 여성을 지배논리 유지를 위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가부장적 가치를 유지하고 여성혐오를 통해 권위를 확인하는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부장적 논리에서 이러한 대안물로서의 대상화는 또 다른 구도에서 한계에 맞닿는다. 남성중심주의 프레임 하에서 남성은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가부장제 유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삼는데, 남성의 여성지배를 의미하는 가부장제 논리는 다른 양태의 지배-종속 구조로 이어진다(강남순, 2020). 즉 모든 관계를 ‘우월-열등’으로 나누고 우월한 쪽이 열등한 쪽을 지배해도 된다는 ‘지배의 논리’를 구성하여, 경제적·사회적 권력을 지닌 남성과 그렇지 못한 남성, 외적으로 우월한 남성과 그렇지 못한 남성, 서구 남성과 비서구 남성 등의 다층적 관계 속에서 지배와 종속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남성중심주의 댓글에서는 한국 남자가 다른 나라 남자보다 우월하다는 민족주의 프레임이 혼합된 댓글과 함께 ‘우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남성의 종속의식과 열등감이 반영된 댓글이 등장했다. 이러한 지배-종속 구조 속에서 남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우월감을 충족할 대상을 쫓고 열등의식을 내면화하게 된다.

유튜브 콘텐츠와 기사, SNS 글, 맘과 인터넷 정보사이트 등 다양한 플랫폼의 정보와 글, 이미지가 서

로 뒤섞이는 상호텍스트성으로 인해 유튜브 콘텐츠가 형성한 구소련권 국가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서로 결합하여 유사한 의미망을 만들어낸다. 에텐서는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결합한 복잡한 의미망이 “다른 배열과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는 수많은 관념과 이미지의 집합체를 제공”할 때, 우리에게 특별히 친숙한 이미지들은 집단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공유된 자원으로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2008[2002]: 338). ‘장모님의 나라’, ‘여권 소지’, ‘김태희가 발매는 나라’와 같은 표현은 대중의 일상 속에서 유머로 기능하며 ‘한국인’이라면 공유할 수 있는 표현으로 공유된다.

6. 결론

2022년 4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을 넘기며 사태가 심각해지자 전쟁에 대한 세계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언론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국제뉴스 보도가 증가하였고, 유튜브 채널 ‘소련여자’를 운영하며 구독자 113만 명을 보유한 러시아 출신 유튜버는 때아닌 악플과 해명 요구를 감내해야 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이슈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유튜브라는 개방적인 창구를 통해 개인적인 경험으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구소련권 여성들에 관한 유튜브 영상이 편향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여성들이 어떻게 재현되고, 또 수용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5개 구소련 국가 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5개국을 선정하여 2022년 2월 14일까지 업로드된 영상 총 399개 영상을 수집하였다. 그중 조회수 상위 20개 영상의 댓글 각 50개씩 총 1,000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콘텐츠의 제목과 댓글을 분석하였다. 이때 키워드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 프레임 분석을 수행하고, 여성혐오와 일상적 민족주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담론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소련권의 여성 중심적 소재, 그들과의 연애 및 결혼, 그리고 한국문화나 한국 여성과 비교하는 영상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댓글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이거나 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외모나 가부장제에 대한 순응 여부로 제시하여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여성혐오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프레임 분석 결과도 일치하였다. 나아가 외국인 여성의 하위 집단 중 하나인 구소련권 여성을 한국 여성뿐만 아니라 타국가 출신 여성들과 비교하며 여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혐오가 일상적 민족주의와 결합하며 세 가지 층위의 담론을 형성하였다. 첫째, 한국 사회의 젠더상 변화에 따라 사실상 가부장제가 해체되어가는 과정 중 한국 남성들은 스스로 역차별의 피해자라 규정하였다. 이에 구소련권 여성을 대상화하며 관음적 시선으로 해당 여성들의 우위를 점하였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한 가부장제의 답습을 구소련 여성 관련 영상을 제작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유튜브 활동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 여성과 타국가 출신 여성을 동원하여 구소련권 여성을 ‘우리’로 포섭하였다. 유튜브 영상과 댓글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질서에 적응할 수 있는 여성상을 강조하였고, 구소련권 여성들은 그러한 암묵적인 제안

에 기꺼이 순응하였다. 셋째, 젠더 갈등 이전까지 한국 남성들을 보호해준 견고한 가부장제 울타리가 무너져가자 잃어버린 남성성에 대한 분노가 여성혐오로 이어졌다. 그리고 한국 여성에 대한 혐오가 낙수 효과로 인해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발현되었고, 구소련권 여성의 외모에 한정된 담론들이 상호텍스트성에 따라 레거시 미디어와 온라인 매체를 오가며 반복 재생산되고 있었다. 이처럼 젠더 차원에서 한국 남성의 여성에 대한 열등의식이 구소련권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주의로 왜곡되었고, 결국 위기에 직면했던 남성성을 회복하는 기제로 구소련 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여성혐오를 유튜브 콘텐츠 분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외국인 수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동원되는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여성혐오와 교차하는 지점을 파악하여 관련 연구의 외연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설문이나 문헌조사로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키워드 및 토픽모델링, 프레임 분석을 토대로 구소련권 여성에 대한 재현과 수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400여 건에 달하는 영상의 제목만을 분석하여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미지 표현 방식, 섬네일과 자막 등 세부적인 정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국가들을 구소련권으로 통칭하였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주변국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러시아를 위시한 역내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료 수집 기간을 확대하고, 내용 분석을 통해 구소련권 여성들의 재현 방식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유희성과 상업성으로 점철된 유튜브 콘텐츠의 단면만 분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가부장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 구소련권의 젠더상의 변화도 함께 읽어낸다면 특정 지역 출신 여성들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남순 (2020). <페미니즘 앞에 선 그대에게>. 파주: 한길사.
- 강봉구 (2009). 한국에서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대한정치학회보>, 16(3), 299-326.
- 강진구 (2012).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 고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2, 5-34.
- 권현지 (2018). 제4장 노동시장의 변화와 청년세대 젠더 갈등.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강원택·구인회·권현지·김용창·주병기 공저. 서울: 푸른길.
- 김금미·안상수 (2014). 남녀대학생의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315-338.
- 김리나 (2017). 메갈리안들의 ‘여성’범주 기획과 연대: “중요한 건 ‘누가’ 아닌 우리의 ‘계획’이다.”. <한국여성학>, 33(3), 109-140.
- 김미영 (2021). 한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재고 (再考): 다문화수용성과 제노포비아 (xenophobia). <다문화콘텐츠연구>, 36, 45-82.
- 김민정 (2017). ‘묻지마 범죄’가 묻지 않은 것: 지식권력의 혐오 생산. <한국여성학>, 33(3), 33-65.
- 김보명 (2018). 페미니즘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 <경제와사회>, 99-138.
- 김수아·김세은 (2016). ‘좋아요’가 만드는 ‘싫어요’의 세계: 페이스북 ‘여성혐오’ 페이지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31(2), 5-44.
-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2), 279-317.
- 김수아 (2017).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페미니즘 주제 토론 가능성: ‘역차별’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2(3), 5-45.
- 김수아·김세은 (2016). ‘좋아요’가 만드는 ‘싫어요’의 세계: 페이스북 ‘여성혐오’ 페이지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31(2), 5-44.
- 김수아·이예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여성혐오’ 및 성차별 사건 관련 게시판 토론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3), 67-107.
- 김세일 (2020). 러시아 청년 세대의 한국 국가이미지 연구. <외국학연구>, (54), 341-358.
- 김은미·조운용·임영호·송보영 (2015). 다문화 범죄 보도에서 기사 구성 방식과 출신국에 대한 태도가 댓글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6), 107-136.
- 김이선·황정미·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I)-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 김진희 (2019). 한국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비판과 이주민에 대한 편향적 태도 분석. <평생학습사회>, 15(2), 127-153.
- 김태훈 (2015, 2, 5).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 <그라치아>, 48호, 62.

- 김현·손병우 (2020). 여성혐오 담론의 경합과 공존: 소설〈82년생 김지영〉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3, 83-111.
- 김현진·전창영 (2021). 빅데이터 토픽모델링과 감성분석을 이용한 한국 언론의 러시아 보도 분석. 〈슬라브研究〉, 37(2), 91-132.
- 김혜신 (2015). 대학생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7, 113-135.
- 김희자 (2009). 영상매체를 통해 지각된 청소년의 외국인인식과 사회적 거리감. 〈동서언론〉, 12, 137-164.
- 남부현·김옥남·남기석 (2014). 외국인 유학생 생활경험 속에 투영된 한국인과 한국문화. 〈사회과학연구〉, 25(1), 105-126.
- 남보영·홍이준 (2021). 외국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간접 접촉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3), 181-208.
- 로즈마리 퍼트넘 통·티나 페르난디스 보츠 (2019).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학이시습.
- 박기수 (2011). 4 대강 사업 뉴스에 대한 보도 프레임 연구: 경향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 등 3 개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4), 5-26.
- 박서연 (2019). 국민정체성과 위협의식,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35(1), 19-31.
- 박종대·박지해 (2014). 한국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28(1), 35-63.
- 방교영 (2011). 러시아 국가 이미지에 관한 연구: 20~ 30 대 한국 여성을 중심으로. 〈슬라브研究〉, 27(4), 97-123.
- 신학진 (2013). 중년의 권위주의적 성향과 외집단 접촉경험이 차별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9(4), 113-134.
- 엄진 (2016).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게시물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1(2), 193-236.
- 에텐서, 팀(박성일 역) 2008[2002],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 서울: 이후.
- 유승무·이태정 (2006). 한국인의 사회적 인정 척도와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담론 201〉, 9(2), 275-311.
- 육주원·신형진 (2021). 한국인의 사회적 관용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인구학〉, 44(4), 1-18.
- 윤보라 (2020). 디지털 거주지 (digital dwelling) 와 성폭력-‘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성희롱 사건’을 다시 보기. 〈페미니즘 연구〉, 20(1), 123-165.
- 윤상우·김상돈 (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91-117.

- 오상아·한유경·양영은 (2017). 초·중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다문화 외국인 교사 배치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5(4), 1-22.
- 이나영 (2016).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 번 출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147-186.
- 이수범·서민혜 (2017). 유튜브 (Youtube) 댓글을 통해 살펴본 한국인의 외국인 수용성 연구: 백인과 흑인의 인종적 차이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5(5), 33-57.
- 이하나 (2015, 2, 10). "IS보다 위험한 페미니즘이라고?"... 여성혐오 드러낸 김태훈 칼럼 논란. <여성신문>. URL: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45>
- 임도경·김창숙 (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1), 5-34.
- 장사형 (2017).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와 그 적용의 적절성 고찰. <교육철학>, (62), 99-126.
- 장소연·류용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혐오의 문화정치: 일간베스트저장소와 메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6(1).
- 장유민·이재림·그레이스 정 (2021). 소셜 빅데이터에 나타난 국제결혼 및 다문화: 토픽모델 분석. <가정과학의질연구>, 39(4), 83-99.
- 장하진·올가 바로니나 (1994).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 여성. <여성과 사회>, (5), 231-238.
- 정인경 (2016).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 연구>, 16(1), 185-219.
- 채영길 (2010). 미디어의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 분석: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에 나타난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의 시계열적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4(2), 205-241.
- 최우익 (2021). <2021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 러시아연구소.
- 한경구·한건수 (2007). 2 장.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현실: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71-116.
- 홍주현·류춘렬 (2014). 유튜브를 통한 국가 간 민족주의 이슈의 확산 과정 연구: 이슈 확산 주기와 이용자의 반응성·네트워크 인접 중심성·네트워크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6), 181-214.
- 황창호·정세희 (2019).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다문화수용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4), 37-74.
- Anderson, K. (2014). *Modern Misogyny: Anti-Feminism in a Post-Feminist Era*. : Oxford University Press.
- Bjork-James, S. (2020). Racializing misogyny: Sexuality and gender in the new online white

- nationalism. *Feminist Anthropology*, 1(2), 176-183.
- Dworkin, Andrea. (1983). *Right-wing women*. TarcherPerigee.
- Firestone, S. (2000). The dialectic of sex. *Radical Feminism: A Documentary Reader*, 90.
- Fox, J. E., & Miller-Idriss, C. (2008). Everyday nationhood. *Ethnicities*, 8(4), 536-563.
- Grant, Judith. "Andrea Dworkin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A Retrospective." *Signs* 31, no. 4 (2006): 967-93. <https://doi.org/10.1086/500603>.
- Hobsbawm, E. J., & Kertzer, D. J. (1992). Ethnicity and nationalism in Europe today. *Anthropology today*, 8(1), 3-8.
- Klausen, J., Barbieri, E. T., Reichlin-Melnick, A., & Zelin, A. Y. (2012). The YouTube Jihadists: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Al-Muhajiroun's propaganda campaign. *Perspectives on Terrorism*, 6(1), 36-53.
- Mayer, T. (2000). *Gender ironies of nationalism. Sexing the Nation*. London.
- Ng, J. Q., & Le Han, E. (2018). Slogans and Slurs, Misogyny and Nationalism: A Case Study of Anti-Japanese Sentiment by Chinese Netizens in Contentious Social Media Com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9328036), 12.
- Purgina, E. (2020). Imagined geography of Russia in Western travelogues: Conceptualizing space through history. *Social Science Information*, 59(2), 264-287.
- Rutland, P. (2021). Racism and Nationalism. *Nationalities Papers*, 1-14.
- Whitmeyer, J. M. (2002). Elites and popular nationalism.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3(3), 321-341.
- Yuval-Davis, N. (1997). Ethnicity, gender relations and multiculturalism. In Bhabha, H. (Eds.), *Debating cultural hybridity: multicultural identities and the politics of anti-racism*, (pp. 193-207).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기타 자료

-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
<https://www.listly.io/>

유튜브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튜브 채널 <백가 PPKa>의 영상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과정 이지형



Contents

유튜브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튜브 채널 <백가 PPKa>의 영상분석을 중심으로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2. 이론적 논의	2-1 혐오표현의 개념과 위험성 2-2 유튜브와 여성혐오 2-3 유튜브 이슈콘텐츠 채널 특징
3. 연구문제	3-1 연구문제
4. 연구방법	4-1 분석 내용 4-2 분석 기간
5. 연구결과	5-1 결과 해석
6. 시사점 & 한계점	6-1 시사점 & 한계점

유튜브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튜브 채널 <백가 PPKKa>의 영상분석을 중심으로

1. 서론 Introduction

- 1-1 연구 배경
- 1-2 연구 목적

1-1. 연구 배경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2021. 2. 25.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기능 폐지



실검의 대체용으로 떠오른 이슈콘텐츠 채널

1-2. 연구 목적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연구 목적

유튜브 이슈 콘텐츠 채널, 일명 사이버 록키들의 **전략적 혐오표현 사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전략적 혐오 콘텐츠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5

유튜브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일명 사이버 록키들의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2. 이론적 논의 Literature Review

- 2-1 혐오표현의 개념과 위험성
- 2-2 유튜브와 여성혐오
- 2-3 유튜브 이슈콘텐츠 채널 특징

2-1. 혐오표현의 개념과 위험성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2-1-1. 혐오표현의 개념

- 'Hate'를 포함하고 있는 혐오표현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
- 한국의 연구자들은 대개 “인종, 민족, 성별,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특히 **소수자 집단을 멸시, 모욕, 위협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연구자에 따라 증오표현, 증오언론, 증오언설, 차별적 표현, 혐오표현, 적의적 표현, 혐오발언, 혐오언론 등 다양하게 표현함(심경수, 2007; 최철영, 2015; 서보건, 2015; 조소영, 2002; 유민석, 2015; 이재진, 2000)

2-1-2. 혐오표현의 위험성

- 개인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성**을 갖게 됨(박해영, 2015)
- 근거없는 유머, 선전이라도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확산되면 쉽게 부풀려지고 과격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더욱 위험함(김민정, 2014)

7

2-2. 유튜브와 여성혐오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2-2. 유튜브와 여성혐오

- 유튜브 내 여성혐오는 여성을 일반적 오염 요소나 악의 근원으로 보는 것이 아닌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특정 여성에 대한 비난, 여성부에 대한 비하, 여경·여군 등 상대적으로 남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을 지닌 여성에 대한 비난 등 **여성의 권익이나 평등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공격하는 일이 일반화**되어있음(김수아, 2015)
-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여성이나 성소수자, 장애인 집단 등의 혐오발언 피해 경험률이 더 높음**(국가인권위원회, 2016)

8

2-3. 유튜브 이슈콘텐츠 채널의 특징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2-3. 유튜브 이슈콘텐츠 채널의 특징

- 유튜브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탈대중화(Demassification), 비동시성(Asynchronicity)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송정은·장원호, 2013)
- 유튜브 내 이슈콘텐츠는 TV 등의 일반 매체와 달리 '게이트 키퍼'가 없다는 특징이 있음(오대영, 2017; 박태근, 2019)
- 콘텐츠를 공유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확산시켜 콘텐츠에 감정이입의 반응까지 불러일으키게 됨(박근영, 2019)

9

유튜브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튜브 채널 <박가 PPKKa>의 영상분석을 중심으로

3. 연구문제 Research question

3-1 연구문제

3-1. 연구 문제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이슈콘텐츠 유튜버들이 **조화수를 올려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혐오의 정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이들의 **전략적 혐오표현 활용 양상**의 구체적인 실체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RQ1.

이슈콘텐츠 유튜브 채널 영상의 전략적 혐오표현 활용 양상은 어떠한가?

11

유튜브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튜브 채널 <백가 PPKKa>의 영상분석을 중심으로

4. 연구방법 Research method

- 4-1 분석 내용
- 4-2 분석 기간

4. 분석 내용 및 기간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분석채널 및 기간



- 분석대상 채널
 - 유튜브 채널 <백가 PPKa> 중 조회수 기준 상위 200개 중 40건의 영상콘텐츠를 무작위 표집하여 연구 진행
- 조사기간
 - 2022. 3. 25 - 2022. 4. 4

분석 채널 설명

채널명	구독자 수	채널 개설일	활동 경력	총 조회 수	업로드된 콘텐츠 (개수)
백가 PPKa	1,160,000	2018. 05 .03	5년	853,127,702	866

채널명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평균 업로드 주기
백가 PPKa	약 100만회 (985,135)	약 2만 3천개 (231.65)	약 5천 7백개 (57.97)	약 1.7일 (1.66)

※ 데이터는 <소셜라스>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데이터는 2022.4.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분석 내용 및 기간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표1. 분석대상 영상 목록 및 좋아요수

유튜브 채널 <백가 PPKa>					
순서	제목 / 썸네일 텍스트	게시일자	좋아요 수	조회수	댓글 수
1	유명한 원더걸스 예은이? [예은 "돈없어 죽을거같다" 생활고 논란] 여성생들 고충ㅋㅋ	2019. 11. 30.	3.2만	3,668,490	6.6천
2	[10대 급식들 반메미 매운맛ㅋㅋ] 제로투덴스 여초반응ㅋㅋ	2021. 05. 23.	5.8만	2,319,548	2.1만
3	[여고생 제로투덴스 여초 반응ㅋ] 김연경, 박세리, 지소연...	2021. 07. 12.	3.5만	2,005,896	8천
4	[논란의 영상 "여성 동일임금"] 베리나 복귀, 대단하다	2021. 08. 14	4.1만	1,873,276	1.5만
5	[베리나 복귀부터 논란] 불편한 그녀	2020. 10. 06.	2.9만	1,861,857	8.5천
6	[김종국 여혐 발언 지적 이성경 논란] 내가 다 참피하네ㅋ	2021. 09. 19.	3.7만	1,798,248	8.8천
7	[엄마...저누나 왜 벗고있어요?] 어제자 KBS뉴스 "여성소방관 맹활약"ㅋㅋ	2021. 12. 02.	4.2만	1,720,328	7천
8	[여성소방관 맹활약 뉴스 기가막힌 활약성ㅋㅋ] 야겜vs쪽방 지금 난리났다ㅋㅋ	2020. 02. 01.	2.6만	1,720,055	7.8천
9	[남철 웹툰 남초vs여초 대전쟁] 개백지네	2021. 04. 21.	3.7만	1,703,610	1.4만
10	[도망간 여경 "드라우마로 전혀 기억 안나"]	2021. 07. 06.	3.5만	1,696,136	1.2만

4. 분석 내용 및 기간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표1. 분석대상 영상 목록 및 좋아요수

순서	제목 / 썸네일 텍스트	유튜브 채널 <백가 PPKKa>		
		게시일자	좋아요 수	조회수
11	어제자 여경 레전드 [흥기 휘두르는데 모녀 냅두고 도망간 여경]	2021. 11. 18.	5.7만	1,696,444
12	지하철 핫팬츠녀 논란 [지하철 핫팬츠녀 논란]	2021. 07. 06.	3.5만	1,696,136
13	악ㅋㅋ너우 재밌다ㅋ [박나래 성희롱 논란 여초 골쟁 반응ㅋㅋ]	2021. 03. 27.	3.1만	1,686,801
14	아... [교복스타그램 성상풍화 논란]	2021. 10. 31.	3.6만	1,683,939
15	그녀의 유튜브 영상 [친요실 또 터졌다 패미 확정]	2021. 11. 04.	3.5만	1,666,608
16	여친있으면 보1지마시오 [남초에서 난리난 설거지론]	2021. 10. 23.	2.7만	1,662,516
17	형시고발이요? [송무원 폭박 유튜브 난리났다]	2021. 12. 14.	3.2만	1,631,809
18	제 생각이 잘못입니다. [최송할니다 설거지론 입장정리]	2021. 10. 25.	3.5만	1,622,189
19	이대생들 "패미 때문이야" [이대 수능일절 폭말 패미 후회중ㅋㅋ]	2021. 02. 14.	2.6만	1,594,364
20	논란의 채널 [도수치료 유튜브 채널 논란]	2021. 10. 12.	2.7만	1,589,497

15

4. 분석 내용 및 기간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표1. 분석대상 영상 목록 및 좋아요수

순서	제목 / 썸네일 텍스트	유튜브 채널 <백가 PPKKa>		
		게시일자	좋아요 수	조회수
21	AOA내부 괴롭힘. 설현도 한때? [AOA지인스스설 과거복선정리]	2020. 07. 06.	1.6만	1,524,638
22	이번엔 양평 여경 [이번엔 양평 여경 대단하다]	2021. 11. 24.	4.1만	1,503,545
23	1박2일 여성 위협 장면 [1박2일 여성 위협 논란]	2021. 03. 17.	1.8만	1,491,120
24	그녀의 엄청난 팔꿈치ㅋㅋㅋ [패미의 팔꿈치머피 웃고개세요ㅋㅋㅋ]	2019. 05. 21.	2.9만	1,489,293
25	오토케 여경 신작ㅋㅋ [여경 뒤편기]	2021. 06. 09.	3.5만	1,458,821
26	왜 이게 남자 잘못? [성인배우 전남진 트러우마 시연ㄷㄷ]	2020. 12. 07.	2.1만	1,455,079
27	브레이브걸스 큰일났다 [브레이브걸스 혼금 여혐논란]	2021. 03. 20.	2.2만	1,451,471
28	응원합니다ㅋㅋ [4B요구하는 여성들 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	2022. 02. 04.	2.9만	1,452,096
29	참다참다 폭발한 남경 [최근 여경논란에 빠진 남경의 호소]	2021. 06. 10.	3.8만	1,431,049
30	여시도 여자 싫기 싫다며 싸우는 이유 [여시도 여자 싫기 싫다며 싸우는 이유]	2021. 07. 19.	2.9만	1,424,312

16

4. 분석 내용 및 기간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표1. 분석대상 영상 목록 및 좋아요수

순서	제목 / 썸네일 텍스트	유튜브 채널 <백가 PPKa>		
		게시일자	좋아요 수	조회수
31	꼭보세요 공론화필요. "반페미 학생 황파시킴" [페미 초등교사 충격적 지하조직 당황]	2021. 05. 05.	5만	1,413,779
32	"남성들 인식개선바란다?" 이젠 또 무슨 발원인가ㅋㅋ [임원주 앵커 노브라 방송 성희롱댓글은 없지만 남성들에게 충고]	2020. 02. 17.	2.1만	1,398,916
33	과반수가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상황 [놀라운 결과 여성징병제ㅋㅋ]	2020. 10. 18.	2.6만	1,398,816
34	유리바닥이 깨졌네요ㅋㅋ [최근 페미사건 동태한 근황들ㅋㅋㅋㅋㅋㅋ]	2019. 06. 25.	2.2만	1,394,304
35	개골쟁ㅋㅋ [난리난 경희대 총여학생 대참사ㅋ]	2021. 09. 28.	3.5만	1,362,529
36	미소풍왔니 페미발언 논란 반전 [미소풍왔니 페미발언 논란 반전에 반전]	2021. 02. 17.	1.9만	1,361,830
37	이 여자가 사는 방식 [<나는 솔로>정자 남성혐오 충격과거]	2021. 12. 24.	2.4만	1,351,079
38	배신감 [<전효성 페미발언 논란의 영상]	2021. 10. 29.	2.8만	1,341,540
39	학교생활 근황 [요즘 여교사들 고충 "헐, 페미예요?"]	2021. 09. 11.	3.6만	1,313,218
40	또한번 여초 레전드 사건 [결코를 뚫기남 노명 사건 결론]	2021. 04. 17.	2.5만	1,310,552

17

4. 분석 내용 및 기간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표2. 분석대상 채널 혐오표현발언

구분	특징	사례
의도	비난, 성형 등이 주요 비하 내용으로, 특히 조롱, 비하 및 멸시하거나 이에 관한 혐오를 기초로 폭행 혹은 살해 위협을 하는 발언	종광이, 풍녀
성과 여성성	성기와 관련된 욕설(신조어)을 비롯하여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가슴이나 성기 등 특정한 신체 부위로 축소하거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롱, 비하 및 멸시의 발언 또는 이에 관한 혐오를 기초로 폭행 혹은 살해 위협을 하는 발언	시선강간, 씹보지, 저녀중, 식사좌(섹스좌), 못만아, 결레, 장녀
능력	한국 여성의 능력 비하, 직장에서의 무능, 운전과 같은 특정한 기술 영역의 무능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조롱, 비하 및 멸시하거나 이에 관한 혐오를 기초로 폭행 혹은 살해 위협을 하는 발언	여경 무능론, 치안불결, 치안중개인, 치안조무사, 치안호소인, 풍경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	살해, 폭력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며, 더 나아가 성기에 대한 직접적 기술 혹은 강간 위협을 하는 발언	백킹, 삼일한
기타 커뮤니티발 혐오표현	여성혐오	남초 커뮤니티에서 사용된 여성혐오표현(발언)
	남성혐오	여초 커뮤니티에서 사용된 남성혐오표현(발언)

출처: 김이민(2021)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발언)의 의미와 맥락 연구, 『2021년 2월 28일 / 김유은의 2021년 인터넷 문화 분석에서 혐오표현(발언)의 의미와 맥락 연구』, 『2021년 2월 28일 / 김유은의 2021년 인터넷 문화 분석에서 혐오표현(발언)의 의미와 맥락 연구』, 『2021년 2월 28일 / 김유은의 2021년 인터넷 문화 분석에서 혐오표현(발언)의 의미와 맥락 연구』

18

유튜브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튜브 채널 <백가 PPKKa>의 영상분석을 중심으로

5. 연구결과

Research result

5-1 결과 해석

5. 결과 해석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5-1. 혐오표현발언에 따른 활용양상

- **외모비하**
 - 비만, 성형 등에 대한 주요 비하 내용이 담겨있으며, 부정적 인식과 비난이 결합되어 있음
 - 여성에게만 특정화하여 비하 표현을 사용함
 - 성형수술 등을 바탕으로 한 외모비하 소폭 하락(↓), 비만 등을 바탕으로 한 외모비하 대폭 상승(↑)
 -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음
 - ex) “(페미니스트를 선연한 유튜브 배리니씨를 향해)워 중간소음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워 누구나 저런거하면서 **콩깍지**라면 밑에서 올라오니까 워 그런의미에서 말하는겁니다. 밑에 꼭 두꺼운 매트리스를 깔아서 중간소음없는 우리 건강한 사회를 만듭시다.” [2020. 10. 06]
- **성적비하**
 - 성기와 관련된 욕설, 특히 특정한 신체 부위를 축소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발언이 결합되어 있음
 - 여성을 성기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비하표현이 대다수를 차지함
 - ex1) “(앗글) …… 인터넷 커뮤니티하면서 저 단어를 접한 모든 젊은남자가 여기저기 대주고 다니던 **실보지**를 내가 왜 책임지나는 의문을 갖게만들 ㅋㅋㅋㅋ” [2021. 10. 23]
 - ex2)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인생은 실전이다 **불만이**” [2021. 04. 17]

20

5. 결과 해석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5-1. 혐오표현발언에 따른 활용양상

• 능력평하

- 직장에서의 무능, 사회적 능력 등에 대한 주요 비하 내용이 담겨있으며, 부정적 인식과 비난이 결합되어 있음
 - 여성에게만 특정화하여 비하 표현을 사용함
 - 여러 비하표현 중 특히 '직장에서의 무능'을 바탕으로 한 비하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 ex1) "치안 **콜걸** 나왔죠. 에이 그래도 이걸 좀 너무하게 콜걸은 프로의식이 있어서 마무리 일처리 하나는 잘하잖아. 너무 콜걸한테 뭐라고 하지 말 시다. 그냥 **치안호소인**이나 **치안리더**, **홍내경찰**이라고 **홍경** 정도로만 하죠" [2021. 11. 24]
- ex2) "나중에 해당 여경 '정신적 피해 호소' **여경 무능력**에 여성혐오 문화는 2차가해' 어쩌고 거리지나 마세요. 이제 앞으로 헬파티 열리는거예요. 무슨 **되도않는 시발 성인자감수성** 들이밀면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여경을 그렇게 뽑아대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겠죠." [2021. 11. 18]

• 기타 커뮤니티발 남·녀비하

- 남성위주 커뮤니티(남초) 혹은 여성위주 커뮤니티(여초)에서 사용을 시작하여 알려지게된 혐오표현발언들로, 남초에서는 여성혐오를, 여초에서는 남성혐오를 위주로 부정적 인식과 비난이 결합되어 만들어짐
 - 남성위주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여성혐오표현은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만들어짐
 - 여성위주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비하용어는 남성에게만 향해있는 반면, 남성위주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비하 용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향해있음
- ex) "이 **체녀층 새끼들이** 이제 **페미**로 치면 **홍자홍자**거리는 애들이겠죠." [2021. 10. 23]

21

5. 결과 해석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5-2. 혐오표현발언의 전략적 활용양상 측면

• 시작은 뉴스로, 근거는 커뮤니티로

- 이슈의 시작을 뉴스 헤드라인, 혹은 기사제목 등을 발췌해 설명함으로써 내용의 신뢰를 얻음
- 내용에 대한 근거는 극성향의 남녀 커뮤니티 게시물을 바탕으로 설명
- 대중의 반응 역시 극성향의 남녀 커뮤니티 게시물 댓글, 혹은 극단적인 뉴스기사 댓글을 위주로 보여주며 설명

•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이들은 설명 언급

-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영상을 제작한 이들의 실명을 언급함으로써, 반대성향 혹은 안티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이들에게 표적을 제공
 - 페미니즘은 잘못된 성향임을 강조
- ex1) "어쨌든 그래서 저 기자들 중 한명에는 **김민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 [2021. 12. 02]
- ex2) "일단 이걸 제작한 사람은 **이은규**라는 PD인데 이름만 들으면 남자같지만 여자예요..." [2021. 08. 14]
- ex3) "자 그래서 이 기사는 **김소연**이라는 기자가 썼는데, ..." [2021. 12. 14]

22

5. 결과 해석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5-2. 혐오표현발언의 전략적 활용양상 측면

• 남성 / 여성 등 물리적 성별을 가르는 단어를 꾸준히 사용하여 남녀를 분리

- 모든 영상에서 '여자남자를 구별하여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
 - 모든 영상에서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여 강조한 단어를 사용
 - 내용에 대한 근거는 남녀 모두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아닌 극성향의 남녀 커뮤니티 게시물을 바탕으로 설명
- ex) 여성정치인-남성정치인, 여성경찰(여경)-남성경찰(남경), 성인 여자 월드컵-남자 중학생 축구팀

• 여성혐오를 위해서는 남성혐오단어도 서스럼없이 사용

- 안티 페미니즘 강조 및 여성혐오를 부각시키기위해 남성혐오단어 사용
 - 여성위주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남성혐오단어뿐만 아니라 남성위주커뮤니티 내에서 사용되는 남성혐오단어를 함께 사용
- ex1) "내 생각엔 와이프를 내무부장관으로 모시는 **노예 기혼남**, 이들을 **풍풍남**이라고 하고, **방구석 편파 모술아다 미혼남**이...(중략)... 이 **처녀종 새끼들이** 이제 **페미**로 치면 **홍지홍자**거리는 애들이겠조." [2021. 10. 23]
- ex2) "남편의 번듯한 직장별로 신속의 출은 때는 살면서 나를 본인의 애쁜 외모와 패션 감각을 뽐내는 사람들이 많은 신도시는 **풍풍시티**였던 겁니다." [2021. 10. 25]

5. 결과 해석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5-2. 혐오표현발언의 전략적 활용양상 측면

• 페미니즘의 잘못된 정의 활용

- 극성향 남성위주커뮤니티에서 소개된 페미니즘의 정의를 사실화시켜 설명
 - 해당 정의를 바탕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며, 여성혐오를 부각
- ex1) "**페미는 레즈가 뿌리**입니다. 페미에는 이런 레즈파가 있고 그냥 이쁜 여성들을 시샘하며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2021. 07. 12]
- ex2) "**페미니스트가 매갈**입니다. 지내들끼리 **페미하려고 모여서 만든 게 매갈**이고 워마드죠...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그 배려를 이익으로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페미 집단입니다." [2021. 05. 23]
- ex3) "백락 페미니즘 마인드, **여성피해주의가 있는 사람**이었죠... 페미들이 고통받는 걸 보니 **아겜이 옳다**." [2021. 04. 21]
- ex4) "이렇게 본인들이 마음에 안들면 이상한 피해자 논리 하나 만들어서 **선동시키는 페미단어가 바로 성적대상화와 성상종착입니다**." [2021. 10. 31]
- ex5)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안팔라기 시작하니깐 다같이 팔지말자고 하는 장사꾼 심리, 이렇게 **모순이 있어야 페미를** 하는 거죠." [2021. 11. 04]
- ex6)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페미니즘을 선드하고 육성하는 곳이 여대**입니다...(중략)... 여대가 디 이렇고 페미를 배우러 오는 곳이고..." [2021. 02. 14]

유튜브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튜브 채널 <백가 PPKa>의 영상분석을 중심으로

6. 시사점 & 한계점 Implications & Limitations

6-1 시사점 및 한계점

6-1. 시사점 및 한계점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시사점 및 한계점

이 연구는 수많은 이슈 유튜브 채널 중 **특정 채널의 영상**만을 다루었으며, **적은 수의 표본**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혐오발언과 함께 유튜브 이슈 콘텐츠 채널, 일명 사이버 렉카의 **전략적 혐오표현 사용 현황을 구체적인 실체와 함께 확인**하며, 기존의 혐오발언 논의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이슈 유튜브 채널의 혐오발언 활용양상을 보다 실증적으로 알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26

유튜브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튜브 채널 (백가 PPKKa)의 영상분석을 중심으로

7. 참고문헌 Reference

참고문헌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 국가인권위원회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 김민정 (2014).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언론과법>, 13권 2호, 131-163.
-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권 2호, 279-317
- 김지수, 윤석민 (2019).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혐오발언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유튜브 및 아프리카 TV토크/캠방 방송에서의 여성혐오발언을 중심으로
- 박근영 (2015). 뉴미디어의 소비가 선거에서 지지후보자 변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1권 1호, 29-55.
- 박태근 (2019). 정치시사 유튜브 이용자의 이용 동기가 채널유형 선택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해영 (2015).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권 3호, 137-169.
- 서보건 (2015). 차별적 표현 규제를 위한 일본의 인권옹호법안의 검토. <유럽헌법연구>, 19호, 121-154
- 송정은, 장원호 (2013). 유튜브(YouTube) 이용자들의 참여에 따른 한류의 확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권 4호, 155-169.

참고문헌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

심경수 (2007). 증오언론(Hate speech)과 십자가 소각(Cross Burning)에 관한 판례경향. <미국헌법학회>, 18권 1호, 39-80.

엄진 (2016).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게시물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1권 2호, 193-236.

오대영 (2017). 수용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이용 동기, 성격이 유튜브의 장르 이용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 학연구>, 17권 4호, 122-162.

유민석 (2015). 혐오발언에 기생하기: 메갈리아의 반란적인 발화. <여성이론>, 33호, 126-152.

이재진 (2000).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6호, 104-146.

조소영 (2002). Cyberspace에서의 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8권 2호, 249-270.

최철영 (2015). 미국연방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일본의 증오언설. <미국헌법연구>, 26권 3호, 299- 325.

유튜브 이슈콘텐츠 채널의
전략적 혐오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튜브 채널 <백가 PPKa>의 영상분석을 중심으로

2022.04.13

감사합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과정 이지형



기혼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수정(부산대학교)* · 홍지훈(부산대학교)**

Abstract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의 3차~7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녀 고용평등법’(1988) 제정 및 이를 개정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2007)에서 여성 고용촉진 및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적극적인 활용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9년 COVID-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하여 국가에서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를 권고하면서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혼여성과 비 활용하는 기혼여성 간 관측 및 미관측되는 속성의 체계적인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에 따른 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함께 활용하여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일반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 여부, 한 달 평균임금, 남편교육연수는 직무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직무 만족도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심 설명 변수인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는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한영선·정영금, 2014) 유연근무제도의 도입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조직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유연근무제 활용 유무가 기혼여성의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선형회귀모형의 추정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유연근무제의 시행 성과는 없으며 직장에서 기혼여성들이 출산 후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일·가정의 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저조한 유연근무제 도입 및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nsj900306@naver.com

**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gh9x@pusan.ac.kr

I. 서론

‘남·녀 고용평등법’(1988) 제정 및 이를 개정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2007)에서 여성 고용촉진 및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규정하였다. 또한, 2010년 2월 대통령 주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유연근무제를 보완하여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선도모형을 발굴하여 민간에 확산할 것을 협의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유연근무제(Flexible Working Arrangement)란 획일적으로 지정된 표준근로시간대(9시부터 18시까지)와 근무지(사업장)에서의 전통적인 근무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일정 부분 이상 허용함으로써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를 뜻한다(Chung and Van der Lippe, 2018).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에 대한 제고가 사회적 이슈로 되었고 이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특히 일과 가정의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는 기혼여성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일과 가정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데(Repetti, 1989) 이와 관련하여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일과 가정의 영향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하지만(Grzywacz, Almeida & McDonald., 2002) 한편으로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가사 노동시간 등은 서로의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화영·정철영, 2014).

2011년 1월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가족 친화적인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나, 2019년까지는 적극적인 활용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9년 COVID-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하여 국가에서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를 권고하면서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의 시행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 초기인 2012년과 2018년을 비교하여 유연근무제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혼여성의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혼여성과 비 활용하는 기혼여성 간 관측 및 미관측되는 속성의 체계적인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에 따른 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함께 활용하여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유연근무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IIId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이용될 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을 설명한다.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유연근무제도는 시간유연제도(flex-time)와 장소유연제도(flex-place)로 구분된다. 시간유연제도는 ‘언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지, 장소유연제도는 ‘어디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근로자의 자율성과 통제권이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Rau and Hyland, 2002).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시간유연제도는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및 시간선택제 등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활용률이 높은 탄력근무제는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는 평균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보다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시차출퇴근제는 기존의 법정근로시간인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며 근무 시작 시간(대략 오전 7시~11시)과 종료 시간(대략 16시~20시)을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제도이다.

장소유연제도는 원격근무와 재택근무 등이 있으며, 기존의 근로시간에는 변화가 없고 근무장소만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소유연제도를 제공하는 조직에서는 비교적 근무시간을 일정 정도는 조절 가능하게 하는 권한을 함께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Dilmaghani, 2020).

기혼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과 직무 만족도와 관련된 초기 선행연구들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 및 갈등이나 직무 및 삶의 만족도와 같은 개인의 복지와 후생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먼저, 시간유연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Ezra and Deckman(1996)은 미국 공공부문에서 시간 유연근무제 활용이 유자녀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일·가족 갈등으로부터 발생 되는 어려움을 완화한다고 하였고 Gallie and Russell(2009)은 유럽 7개국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재량이 일·가족 갈등을 줄인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반하여 Schieman and Young(2010)의 연구에서는 근무 일정에 대한 통제력이 일·가정의 역할 구분의 갈등과 모호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Lott and Chung(2016)는 시간유연성이 반드시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지는 않으며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권태희(2010)는 여성관리자패널 2008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연근로가 여성 관리자의 직장·가정 양립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도 중 시차출퇴근제도는 직장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역할갈등을 낮추는 데에는 무관하다는 결론은 도출하였다. 한영선·정영금(2014)은 여성가족패널조사의 1차~4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합계출산율에 포함되는 15~49세의 기혼여성들로 주로 출산 및 자녀양육기에 있는 기혼여성에게 시간제 근로, 탄력근로/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의 3가지 종류의 유연근무제가 그들의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갈등 축진 및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탄력근로/시차출퇴근제는 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

을 완화하거나 직무만족을 증대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현(2021)은 여성관리자패널 4차~7차 자료를 활용하여 유연근무제도 사용이 기혼 여성 관리자의 직업 및 개인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순서형로짓분석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 유연성은 여성관리자의 직업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개인 생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소유연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장소유연제의 장점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출퇴근 시간의 단축과 조직 이외의 영역에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역할 간의 이행이 용이한 점 등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인 장점에 주목하여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Sullivan and Lewis, 2001; Edwards, and Field-Hendrey, 2002; Golden, Veiga, and Simsek, 2006). 국내 연구로 권태희(2010)는 재택근무는 가족 생활 만족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관리자의 일·가정 양립의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재택근무가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Kelliher and Anderson(2010)은 재택근무로 인한 통근시간 단축 등의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업무의 강도는 증가하여 일·생활 갈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하였고 Schieman and Young(2010) 또한,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업무에 대한 생각이 지속되어 일과 생활 영역 사이 경계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일·생활 갈등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나타났다. 김지현(2021)의 연구에서도 장소 유연성은 직업생활 및 개인생활 만족도에서 모두 유효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일관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단순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패널 순서형 로짓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으로 유연근무제의 시행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 초기인 2012년과 2018년을 비교하여 유연근무제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혼여성의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혼여성과 비 활용하는 기혼여성 간 관측 및 미관측되는 속성의 체계적인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본 선택에 따른 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함께 활용하여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추정하였다.

Ⅲ. 자료 및 실증 분석 모형

3.1. 자료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전국 일반가구 중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여성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출된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여성 9,997명이 원표본으로 하여 2007년 1차년도, 2008년 2차년도, 2010년 3차년도, 2012년 4차년도, 2014년 5차년도, 2016년 6차년도, 2018년 7차년도 조사가 이뤄졌다. 1차와 2차에는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항목이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3차~7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 변수 설명

변수	변수 설명	
Outcome variable	<i>satisfaction</i>	직무 만족도 9개 항목의 평균값을 산출. (1)소득 만족도, 2)고용안정성 만족도, 3)일의 내용 만족도, 4)근로환경 만족도, 5)근로시간 만족도, 6)발전가능성 만족도, 7)직장인간관계 만족도, 8)복리후생 만족도, 9)전반적 만족도 (측정 :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
Treatment variable	<i>flexitime</i>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탄력근로 및 시차출퇴근제 제공 여부. (제공된다=1, 제공되지 않는다=0)
Independent variable	<i>age</i>	연령.
	<i>regular_w</i>	일자리 구분(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정규직=1, 비정규직=0)
	<i>ln_wkhours</i>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로그 취한 값.
	<i>ln_wage</i>	한 달 평균임금에 로그 취한 값.
	<i>edyear</i>	교육연수.
	<i>ln_worker</i>	사업체 직원수에 로그 취한 값.
	<i>preschooler</i>	미취학 자녀 수.
	<i>hedyear</i>	남편 교육연수.
	<i>ind</i>	산업코드 대분류
<i>year</i>	조사 차수(3차~7차). 2010년(3차), 2012년(4차), 2014년(5차), 2016년(6차), 2018년(7차).	

Outcome variable은 직무 만족도(*satisfaction*)로 각 조사년도에 조사된 9개 항목((1)소득 만족도, 2) 고용안정성 만족도, 3)일의 내용 만족도, 4)근로환경 만족도, 5)근로시간 만족도, 6)발전가능성 만족도, 7)직장인간관계 만족도, 8)복리후생 만족도, 9)전반적 만족도)의 직무 만족도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계산하였다. 측정은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으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직무 만족도가 높다.

Treatment variable은 유연근무제의 활용 여부(*flexitime*)를 측정하기 위해 탄력근로 및 시차출퇴근제 제공여부 항목을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고, 제공되면 1, 제공되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로 나타냈다. 그 밖의 Independent variable은 연령, 일자리 구분(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주당 평균 근로시간, 한달 평균임금, 교육연수, 사업체 직원수, 미취학 자녀수, 남편 교육연수, 산업코드 대분류 및 조사차수로 구체적인 설명은 <표 1>에 제시하였다.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직무 만족도(*satisfaction*)는 평균 3.20으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age*)은 48세, 주당 평균 근로시간(*wkhours*)은 43시간, 한 달 평균 임금(*wage*)은 151만원, 교육연수(*edyear*)는 11.84년, 미취학 자녀수(*preschooler*)는 1.36명, 남편교육연수(*hedyear*)는 11.37년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초통계량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i>satisfaction</i>	17,591	3.202187	.5586145	1	5
<i>flexitime</i>	9,149	.0323533	.1769462	0	1
<i>age</i>	31,709	48.05065	9.381048	19	64
<i>regular_w</i>	9,146	.4198557	.4935621	0	1
<i>wkhours</i>	17,568	43.06426	15.95908	0	140
<i>wage</i>	15,268	151.5943	117.1909	0	1500
<i>edyear</i>	31,690	11.8432	3.376815	0	22
<i>worker</i>	9,137	2.726497	1.501806	1	7
<i>preschooler</i>	5,217	1.362085	.544602	1	4
<i>hedyear</i>	28,226	12.85216	3.294842	0	22
<i>ind</i>	17,494	11.36687	6.661969	1	23
<i>year</i>	31,709	5.000315	1.435221	3	7

3.2. 실증분석 모형

3.2.1.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용이 기혼여성의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이중차분법과 성향점수매칭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먼저 이중차분법(DID)은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어떤 사건의 전·후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특정 사건의 순효과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혼여성으로 두고, 비교집단은 유연근무제를 비활용하는 기혼여성으로 설정하여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이중차분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Delta Satisfaction_{i,t}] = (E[Satisfaction_{i,t}|Z=1] - E[Satisfaction_{i,t-1}|Z=0]) - (E[Satisfaction_{j,t}|Z=0] - E[Satisfaction_{j,t-1}|Z=0]) \quad (1)$$

i 를 실험집단의 기혼여성으로, j 를 비교집단의 기혼여성으로 두고, *Satisfaction*을 각 집단의 직무 만족도 측정치, $Z=1$ 인 경우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라 하고, $Z=0$ 인 경우를 유연근무제를 비활용하는 경우라 한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유연근무제 활용의 순효과는 위의 식 (1)과 같다. 위의 수식에서 보듯이 순효과($E[\Delta Satisfaction_{i,t}]$)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의 유연근무제 활용 이전과 이후 자료, 비교집단의 유연근무제 활용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활용의 효과가 동일 근로자 내 시간에 따른 직무 만족도의 변화에 의해 식별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중차분법의 활용은 관측되지 않는 기혼여성의 고유한 효과를 통해 발생 가능한 선택편의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관측되는 기혼여성의 속성의 차이가 유연근무제 활용 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경우에는 이중차분법의 활용은 여전히 유연근무제 활용 시 발생하는 표본선택에 의한 편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아래와 같은 성향점수매칭을 먼저 적용하여 유연근무제 활용 성향이 동일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성한 후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관측 및 미관측되는 속성으로 인한 선택편의를 동시에 교정하고자 하였다.

3.2.2. 성향점수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성향점수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¹⁾은 준실험방법(quasi-experiments)에서 발생하는 중첩변수(confounding variable)를 제거하여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를 완화하

1) 성향점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음.

는 방법이다(Rosenbaum and Rubin, 1983). 본 연구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혼여성과 유연근무제를 비활용하는 기혼여성 표본이 관측되는 속성에 있어 체계적인 차이를 나타낼 때 직무 만족도의 그룹 간 평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유연근무제 활용이 기혼여성의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편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한 추정이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i) 조건부 독립성, ii) 공통영역의 두 가지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 조건부 독립성 가정은 관찰 가능한 그룹의 특성이 주어진다면, 유연근무제 활용여부와 기혼여성의 성과변수들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관찰되지 않은 특성은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공통영역의 가정은 유연근무제 활용 집단과 유연근무제 비활용 집단의 유연근무제 활용의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의 범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SM은 증첩변수 즉,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성향이 다른 특징을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이용해 공변량(covariate)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집단의 개체와 성향점수가 유사한 유연근무제 비활용 집단의 개체를 찾아 이러한 개체로 비활용 집단을 다시 구성하는 매칭의 과정을 갖는다. 이때 본 연구에서의 성향점수는 개별 기혼여성이 유연근무제 활용집단에 속할 확률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성향점수는 공변량에서 개체가 유연근무제 활용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나타내며, 이는 활용집단의 개체와 매우 유사한 비활용 집단의 개체를 매칭하는데 이용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2)와 같다.

$$f(X_1, X_2, \dots, X_p) = P(Z = 1 | X_1, X_2, \dots, X_p) \quad (2)$$

식 (6)에서 $f(X_1, X_2, \dots, X_p)$ 는 성향점수를, P 는 확률을, Z 는 유연근무제 활용 집단에 속하면 1, 유연근무제 비활용 집단에 속하면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를, 그리고 X_1, X_2, \dots, X_p 는 관찰된 공변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양한 매칭방법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활용집단의 성향점수와 가장 유사한 성향점수를 갖는 비활용 집단과 짝을 짓는 가장 가까운 이웃 매칭(nearest-neighbor matching)²⁾을 사용한다.

IV. 실증 분석

본 절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3차~7차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단순일반회귀모형을 추정하는 경우, 자료의 특성상 관측되지 않는 속성을 통제하지 못해 표본선택편의로 인한 내생성이 발생할 수 있다(Zaefarian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방법을 사용하여 집단의 관측되는 속성이

2) PSM에 대한 매칭방법은 nearest neighbor matching, caliper catching, kernel matching, local linear matching 등 4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유연근무제 활용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활용 성향이 동일한 유연근무제 활용 집단과 비활용 집단 간의 직무 만족도의 격차로 유연근무제 활용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Heckman et al(1997)에 따르면 성향점수매칭을 적용하더라도 시간 불변적(time-invariant)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는 개별 기혼여성 수준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이 여전히 모형의 추정치에 편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PSM-DID)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혼여성과 비활용하는 기혼여성의 관측되지 않은 시간 불변적 차이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PSM-DID를 활용하여 직무 만족도에 대한 유연근무제 활용의 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4.1 유연근무제 활용과 직무 만족도의 관계

유연근무제 활용의 순효과를 추정하기에 앞서, 기혼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와 직무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일반선형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Satisfaction_{i,t} = \alpha_0 + \beta_1 (Flexitime_i) + \sum_j \beta_j Z_{i,t} + \epsilon_{i,t} \quad (3)$$

(단, $i=1,2,\dots,n$ 이고, $t=3$ 차(2010), 4차(2012), 5차(2014), 6차(2016), 7차(2018). $Satisfaction_{i,t}$ 은 직무 만족도, $Flexitime_i$ 은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Z_{i,t}$ 는 기혼여성의 특성에 대한 변수의 벡터, $\epsilon_{i,t}$ 는 i.i.d를 따르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표 3〉은 위의 일반선형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규직 여부(*regular_w*), 한 달 평균임금(*ln_wage*), 남편교육연수(*hedyear*)는 직무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달 평균임금(*ln_wage*)은 일자리 특성 변수 중 일에 따른 보상이나 성과로서 여성 임금이 기혼여성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김용자, 1995; 조은미, 2009; 한영선·정영금, 2014). 주당 평균 근로시간(*ln_wkhours*)은 직무 만족도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심 설명변수인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flexitime*)는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한영선·정영금, 2014) 직장에서 기혼여성들이 출산 후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일·가정의 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도의 도입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조직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회귀분석 결과

<i>satisfaction</i>	<i>Coef</i>	<i>Std Err</i>	<i>P> t </i>
<i>flexitime</i>	-0.072	0.062	0.241
<i>age</i>	-0.004	0.003	0.159
<i>regular_w</i>	0.248***	0.038	0.000
<i>ln_wkhours</i>	-0.310***	0.047	0.000
<i>ln_wage</i>	0.349***	0.047	0.000
<i>edyear</i>	0.002	0.010	0.824
<i>ln_worker</i>	0.028	0.028	0.326
<i>preschooler</i>	-0.022	0.029	0.448
<i>hedyear</i>	0.021**	0.009	0.016
<i>obs</i>		1,242	
<i>Adj R²</i>		0.259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ind(산업코드 대분류)와 year(조사차수)가 포함되었으나, 지면 절약의 이유로 추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4.2 PSM-DID를 활용한 유연근무제 활용의 순효과

본 절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집단을 실험군(treatment group)으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control group)으로 설정하여 PSM, PSM-DID 모형을 추정하였다.

3차(2010년)를 기준으로 PSM 매칭을 진행하였고 매칭 후, 매칭된 관측치를 바탕으로 4차(2012년)와 7차(2018년)를 DID 분석하였다. 성향점수의 추정을 위해서는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처치군과 대조군의 매칭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활용확률이 가장 유사한 기혼여성과 매칭이 이루어지는 가장 가까운 이웃 매칭(nearest-neighbor matching)을 적용하였다.

〈표 7〉의 Panel A를 통해 먼저 매칭 전 결과를 살펴보면, 가까운 이웃 매칭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는 유연근무제 비활용 집단과 활용 집단의 평균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Panel B의 매칭 후 결과에서는 비활용 집단의 직무 만족도가 Panel A의 비활용 집단②의 직무 만족도보다 모두 높아진 결과 각 해당연도의 평균 직무 만족도의 격차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향점수매칭을 통하여 유연근무제 활용 성향의 관점에서 비활용 집단의 공변량이 활용 집단의 공변량과 유사해졌음을 의미한다.

〈표 4〉 PSM-DID 분석 결과

Panel A : 매칭 전 결과					
	관측치 수		satisfaction		평균 차 (표준편차) [①-②]
	유연근무 활용 (treatment group)	유연근무 미활용 (control group)	유연근무 활용[①] (treatment group)	유연근무 비활용 [②] (control group)	
satisfaction (unmatched)	51	1,496	3.706	3.341	0.365** (0.158)
Panel B : 매칭 후 결과					
	관측치 수		satisfaction		평균 차 (표준편차) [③-④]
	유연근무 활용 (treatment group)	유연근무 비활용 (control group)	유연근무 활용[③] (treatment group)	유연근무 비활용 [④] (control group)	
satisfaction (ATT)	17	288	3.706	3.889	-0.183*** (0.233)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그림 1〉은 매칭 전후의 성향점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매칭 전에는 처치군인 유연근무제 활용 집단과 대조군인 비활용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aw), 매칭 이후에는 처치군의 성향점수의 분포와 대조군의 성향점수 분포가 상당히 비슷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Matched). 즉, 매칭 전에는 처치군에 속한 집단과 대조군에 속한 집단이 관측된 변수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던 반면, 매칭 이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상당히 해소되었다.

〈그림 1〉 매칭 전후의 성향점수의 분포



그러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혼여성과 비활용하는 기혼여성 간 직무 만족도에 있어서 시간불변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여전히 관측되지 않는 개별 기혼여성 수준의 요인에 의한 선택편의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구성된 표본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는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Heckman et al., 1997). 이에 먼저 매칭기법을 적용하여 활용 집단과 비활용 집단 간 공변인을 유사하게 통제한 후 시간 불변적인 개별 기혼여성 수준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추가로 제거하고 직무 만족도에 대한 유연근무제 활용의 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모형을 사용하였다.

$$\ln Satisfaction_{i,t} = \beta_0 + \beta_1 (Flexitime_i) + \beta_2 (post_t) + \beta_3 (Flexitime_i \times post_t) + \sum_j \beta_j Z_{i,t} + \epsilon_{i,t} \quad (3)$$

(단, $i=1,2,\dots,n$ 이고, $t=4차(2012), 7차(2018)$. $Satisfaction_{i,t}$ 은 직무 만족도, $Flexitime_i$ 은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post_t$ 은 유연근무제 시행 이후 1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 $Z_{i,t}$ 는 기혼여성의 특성에 대한 변수의 벡터, $\epsilon_{i,t}$ 는 i.i.d를 따르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표 5〉 PSM-DID 분석 결과

<i>satisfaction</i>	<i>Coef</i>	<i>Std Err</i>	<i>P> t </i>
<i>flexitime*post</i>	0.123	0.372	0.741
<i>flexitime</i>	-0.221	0.176	0.213
<i>post</i>	0.339**	0.148	0.023
<i>age</i>	-0.024**	0.012	0.047
<i>regular_w</i>	0.366***	0.121	0.003
<i>ln_wkhours</i>	-0.318**	0.143	0.028
<i>ln_wage</i>	0.081	0.119	0.498
<i>edyear</i>	0.017	0.032	0.591
<i>ln_worker</i>	0.071	0.089	0.430
<i>preschooler</i>	-0.134	0.091	0.142
<i>hedyear</i>	0.031	0.027	0.255
<i>obs</i>	154		
<i>Adj R²</i>	0.234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ind(산업코드 대분류)가 포함되었으나, 지면 절약의 이유로 추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위 식(3)에서 $\hat{\beta}_3$ 은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flexitime*)와 유연근무제 시행 이후 더미(*post*)의 교차항의 추정계수로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나타낸다. <표 5>의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hat{\beta}_3$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반선행회귀모형(<표 3>)의 추정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유연근무제의 시행 성과는 없으며 직장에서 기혼여성들이 출산 후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일·가정의 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도의 도입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조직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의 3차~7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반선행회귀모형 및 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한 PSM-DID를 분석에 사용하여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추정하였고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선행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 여부(*regular_w*), 한 달 평균임금(*ln_wage*), 남편교육연수(*hedyear*)는 직무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달 평균임금(*ln_wage*)은 일자리 특성 변수 중 일에 따른 보상이나 성과로서 여성 임금이 기혼여성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김용자, 1995; 조은미, 2009; 한영선·정영금, 2014). 주당 평균 근로시간(*ln_wkhours*)은 직무 만족도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심 설명변수인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flexitime*)는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한영선·정영금, 2014) 유연근무제도의 도입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조직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유연근무제 활용 기혼여성과 비활용 기혼여성 간 관측되지 않는 시간 불가변적인 요인으로 인한 표본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활용 유무가 기혼여성의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선행회귀모형의 추정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유연근무제의 시행 성과는 없으며 직장에서 기혼여성들이 출산 후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일·가정의 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저조한 유연근무제 도입 및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유연근무제가 확산되어 추후 연구에서는 COVID-19 발생 이전 이후로 나눠 분석해 본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유연근무제는 시간유연성과 장소유연성으로 나뉘는데 데이터 상의 한계로 시간유연성만 연구에 포함하여 분석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장소유연성을 포함한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 문헌

- 권태희 (2010), “유연근로가 여성 관리자의 직장-가정양립에 미치는 효과”, *여성연구*, 78(1), pp. 5-30.
- 김용자 (1995). “관리직 여성의 직무만족 요인분석”, *아시아여성연구*, 34, pp. 101-128.
- 김지현 (2021), “유연근무제도 사용이 기혼 여성 관리자의 일-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업무시간외근무와 배우자 협조의 조절효과 검증”, *사회보장연구*, vol.37, 98호 pp. 5-40.
- 조은미 (2009).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화영·정철영 (2014). “국내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전이 영향요인에 관한 통합적 문헌 고찰”. *산업교육연구*, 제28권, 65-92.
- 한영선·정영금 (2014), “유연근무제도가 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 및 촉진,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4), pp. 1-26.
- Chung, H., Van der Lippe, T., (2018), “Flexible working, work-life balance, and gender equality: Introdu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1, pp. 365-381.
- Dilmaghani, M., (2020), “There is a time and a place for work: comparative evaluation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42(1), pp. 167-192.
- Edwards, L. N., Field-Hendrey, E., (2002), “Home-based work and women’s labor force decisions”, *Journal of labor Economics*, 20(1), pp. 170-200.
- Ezra, M., Deckman, M., (1996), “Balancing work and family responsibilities: Flextime and child care in the feder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6(2), pp. 174-179.
- Gallie, D., & Russell, H., (2009), “Work-family conflict and working conditions in Western Europ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3(3), pp. 445-467.
- Golden, T. D., Veiga, J. F., Simsek, Z., (2006), “Telecommuting’s differential impact on work-family conflict: Is there no place like hom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6), pp. 1340-1350.
- Grzywacz, J. G., Almeida, D. M., & McDonald, D. A. (2002), “Work-family spillover and daily reports of work and family stress in the adult labor force”, *Family relations*, 51(1), 28-36.
- Heckman, J. J., Ichimura, H., & Todd, P. E. (1997), “Matching as an econometric evaluation estimator: Evidence from evaluating a job training programme”,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4(4), 605-654.

- Lott, Y., Chung, H., (2016), "Gender discrepancies in the outcomes of schedule control on overtime hours and income in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2(6), pp. 752-765.
- Rau, B. L., Hyland, M. A. M., (2002), "Role conflict and flexible work arrangements: The effects on applicant attraction", *Personnel psychology*, 55(1), pp. 111-136.
- Repetti, R. L.(1989), "Effects of daily workload on subsequent behavior during marital interaction: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and spouse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pp. 651.
- Rosenbaum, P. R., & Rubin, D. B.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1), pp. 41-55.
- Schieman, S., & Young, M.,(2010), "Is there a downside to schedule control for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Family Issues*, 31(10), pp. 1391-1414.
- Sullivan, C., Lewis, S., (2001), "Home based telework, gender, and the synchronization of work and family: perspectives of teleworkers and their co residents", *Gender, Work & Organization*, 8(2), pp. 123-145.
- Zaefarian, G., Kadile, V., Henneberg, S. C., & Leischnig, A. (2017), "Endogeneity bias in marketing research: Problem, causes and remedie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65, pp. 39-46.

혐오의 정당화: 방역 상황에서의 성소수자 혐오*: 언론보도와 커뮤니티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김시연(서울대) · 오예주(서울대) · 김수아(서울대)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K-방역 담론이 형성되어 방역 참여와 윤리가 연결된 상황에서 성소수자 혐오가 정당화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감염자를 비난하던 당시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성소수자 혐오 담론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해당 시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SNS 게시물 언급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성소수자 혐오가 늘어났음을 보여 주었다. 2020년 5월 1-2주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당시 인천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서 코로나19 감염 전파자로서 성소수자가 지목되었던 것과 관련된다. 다만 5월 10일, 관련 보도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점차로 언론 기사의 방향이 전환된 것이 혐오표현을 다소 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그런데 위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느끼게 된 경우는 3.6%로 종교인(59.2%), 특정지역 출신(36.7%)에 비해 낮게 보인다. 즉, 신천지 교인에 대한 비난과 대구 지역 확진자, 그리고 대구의 방역 상황에 대한 비난이 국민 인식 속에 더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동일조사에서 성소수자의 경우 차별 경험을 한 장소에서 참여자 전원(100%)이 온라인 공간을 꼽았다.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혐오표현이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 소수자가 경험하게 되는 위협, 배제의 감각이 분석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혐오표현을 남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중요하게 남아 있지 않다고 해도, 해당 사건에서 즉각적으로 발화된 것들은 표적집단에게 영향을 미친다.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조사 연구는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존재의 말살과 같은 감각을 갖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적 공간에서의 무시, 일상에서의 무시, 가족 내에서의 모욕은 물론 퀴

* 이 글은 2021년 8월 27일 개최된 Hate speech workshop에서 발표된 내용(Sooah Kim, Analysis of homophobic hate speech in the pandemic crisis: Focusing Korean portal news service & online community comments)을 바탕으로, 자료를 재수집하여 재분석한 글입니다. 구성중인 글로, 인용시 사전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soojy1234@daum.net)

어 집단 내에서도 배격을 경험하게 된다(최현정, 2020).

일상적으로 성소수자는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다고 느끼는 집단의 순서는 여성, 페미니스트, 성소수자의 순으로 나타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남성들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자신에게 피해가 된다고 여기거나, 향후 자신의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해를 미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은 사실상 근거가 없지만 혐오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고, 이렇게 자신이 입을 상상적 피해에 근거한 혐오의 논리는 이주민 혐오 등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양혜우, 2019). 한국의 경우,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의 공포라는 피해가 성소수자 혐오를 국민의 이익이라는 담론으로 정당화되는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특히 2020년 5월, 한국에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데 성소수자의 클럽 방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성소수자 혐오가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방역에의 동참이라는 국민 동원 담론이 확진자의 동선 공개라는 인권 침해적 방법을 통해 정당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언론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공익이라는 목적으로 공개하면서 지나치게 사적 정보를 노출하여,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확진자 동선 공개가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원래의 목적인 방역 정보가 아닌, 불안을 개인에게 환원하도록 하는데 쓰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실제로 확진자 동선 공개가 갖는 법제도적 문제점 및 인권 침해적 차원이 논의되기도 하였다(정종구, 손정구, 2020).

언론은 정부 당국과 지자체가 공개한 것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론인의 인식은 각종 보도 논란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집값 상승 보도가 오히려 상승을 부추킨다는 비판에도 기자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뿐이라는 인식을 보인다(최진호 외, 2021). 하지만 지역 시민들이 해당 지역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해당 지역 거주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언론에 의해 확산되는 것은 다른 의미이다. 또한, 사실상의 신상 공개가 되기에 인권 침해 요소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한 사항이었다.

이 글은 2020년 5월 7일부터 이태원 클럽 확진자 관련 주요 사건이 발생한 날의 언론 보도와, 관련 보도의 포털 서비스 댓글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을 분석하여 혐오 현상의 확산과 정당화 논리를 살피고, 이러한 혐오 확산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 내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2. 국내 성소수자 혐오표현 관련 연구: 문제와 쟁점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연구 논문은 많지 않은 편이다. 혐오표현 표적집단으로 성소수자를 특정하기보다는, 혐오표현 관련 논의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표적 집단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성소수자 혐오표현의 문제들이 지적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홍성수 외, 2016). 문제는 특정 종교 집단 관련 학술 저널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주장들이 학술적 연구의 이름으로 실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옹호 입법의 출발점이며, 결혼과 가족 관계에서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며 비판하는 글이 학술적 주장으로 유통된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차별 금지법이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음선필, 2020). 성별 정체성에서 여성과 남성이 아닌 성을 정의하는 것은 병역의무회피 수단이 되며 동성결혼 합법화, 가족 개념의 해체, 여성의 역차별 문제, 공정성 훼손 문제 등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윤용근, 2021). 이러한 연구들은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차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성별 정체성의 다양성 자체를 신앙에 근거하여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김장생(2020)의 연구는 이러한 특성이 정치적 보수성과 연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보수적 개신교도들은 동성애는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성서 기술을 문화적, 역사적 방법이 아닌 축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다른 한편으로 종교적 신념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는 것이 사회적 담론화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보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다른 학술 영역 특히 과학 담론이 동원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백조연, 이나영(2017)은 성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담론을 내세워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는 실천들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동성애는 과학적인 주장이라는 외피를 입고 건강과 위생, 윤리와 도덕, 생물학적 질서 및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차원에서 규정되며, 동성애자는 자연에 반하는 더럽고 질병을 일으키는 혐오스러운 병리적 타자이자 비정상적이며 비윤리적인 존재로 구성된다. 이렇게 ‘문제적’ ‘동성애자’ 구성을 통해 이성애 규범성 및 위계적 젠더질서가 구축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소수자 혐오가 주로 남성 성소수자, 즉 게이 혐오와 관련되며, 이것이 태극기 집회 등을 통해 ‘종북 게이’ 등으로 증첩된 혐오 대상으로 등장하는 현상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성애 가족문화 파괴가 안보와 연관되면서, 혐오가 국가의 안정을 위해 정당화되는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다(김엘리, 2021). 또한 이희영 외(2021)는 2020년 5월의 성소수자 관련 방역 담론을 분석하면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민주적 방역이라는 당시의 담론이 취약함이 있었고, 방역 당국이 이를 인권단체와 연계하여 방역 위기를 대응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의 시민권이 배제되어 온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트랜스젠더 혐오에 대한 담론 분석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여성 우선주의 페미니즘(정희진, 2018)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고자 하면서 일어나는 논쟁을 다루는 것으로, 보수 기독교 담론과 절합하여 생물학적 성별 개념을 절대적 진실로 가정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의 자리를 뺏으려는 침략자로 개념화하려고 한다(이효민, 2019).

요컨대, 한국 상황에서 성소수자 혐오는 혐오표현의 표적집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 양상과 혐오에 동원되는 담론에 대한 분석들이 국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이 중 방역과 시민권, 그리고 공정에 대한 담론들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혐오 동원에 활용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3. ‘이태원 클럽’ 관련 보도 분석

2020년 5월 7일 보도된 용인의 확진자는 이태원 소재의 클럽 방문자인데, 해당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성소수자임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된 상황, 즉 아웃팅 상황이 되었다. 2020년 5월 7일 당일 해당 확진자에 대한 보도는 네이버 포털 서비스 기준으로 375건이다. 이 중, 게이 클럽을 기사 내 명시한 기사는 총 121건이었다. 당일, 언론 비평을 주로 하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스와 PD 저널은 게이 클럽을 명시하고 성소수자임을 드러내는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몇몇 보도는 제목에 ‘아웃팅 우려’라는 말을 넣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 양상은 포털 서비스를 통해 뉴스가 소비되는 맥락을 배경으로, 방역이 전국민적 관심사이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동원이 이루어지는 생명정치 상황에서 문제를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희영 외(2021)는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민주적인 것, 시민성으로 담론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방역 절차 즉 동선 공개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로 인식되었음을 보인다. 그리고 방역 당국이 동선 공개 문제가 성소수자에게는 구조적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문제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는 언론 보도가 여론을 구성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상황에서 더욱 자연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사례는 뉴스1이나 연합뉴스와 같은 통신사 즉 1차 기사 생산자들이 5월 7일 하루 생산한 기사 제목이다.

〈표 1〉 통신사 생산 기사 제목 (포털 노출 시간 순)

연합뉴스	뉴스1
용인 확진 남성, 클럽·식당 등 잇따라 방문...“집단감염 우려” 확진자 다녀간 이태원 클럽 용인 확진 남성, 1시간 단위로 이태원 클럽 다섯 군데 방문 (종합) [그래픽]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방문 용인 확진자 주요 동선 ‘클럽’ 코로나19 뇌관되나...“밀폐·밀접접촉에 ‘슈퍼전파’ 위험” “연휴 맞아 모처럼 문 열었는데”...직격탄 맞은 이태원 클럽들 용인 확진자 다녀간 클럽방문자 등 인천서 8명 검체 검사	코로나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 방문...용산구 “역학조사 중” 신규확진 4명, 나흘만에 지역서 발생...“용인 20대 남, 게이클럽 방문” 게이클럽 다닌 용인 확진자...함께 여행한 친구도 ‘양성’ ‘이태원 클럽’ 동선 드러난 코로나19 확진자...“분당 회사엔 출근 안했다” 용인 확진자, 게이클럽 방문 전 감염 가능성↑...또다른 폭탄되나 용인시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이태원 클럽 방문’ 용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굳게 닫힌 클럽 문’ 방역당국 “용인 확진자 친구 1명도 확진...접촉자 57명 늘어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우려’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이태원 클럽 ‘비상’ 이태원 방문 확진자 2명...클럽·주점 5군데 ‘들락날락’ “감염 걱정, 손님 안올까 더 걱정”...숨죽인 이태원 ‘킹클럽’ ‘이태원 클럽 확진자’ 사내 공지하면서 녹장대응에...직원들 ‘분통’ 안양 확진자, 판교 게임사 직원 접촉...“전사 재택근무 전환” 확진자 들른 이태원클럽 방문한 인천 시민 6명·접촉 1명...검사중

뉴스1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매체 특성을 반영하듯 7일 하루에만 15건을 생산했다(포토기사 제외). 연합뉴스는 8건이다. 뉴스1은 게이클럽을 강조하는 초기 보도에서, 성소수자 아웃팅 논란이 발생하자 이후 이태원 클럽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성소수자와 관련성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후의 ‘게이’ 삭제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 또한, 애초 기사를 삭제하지 않았기에 지속적으로 검색을 통해 포털에 노출될 수 있다.

실시간에 가까운 기사 생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감염 위험의 즉각성’이다. ‘폭탄’, ‘비상’ 등의 전쟁 용어 사용은 긴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감염된 사람은 문제 원인으로 간주되어 불안을 야기하는 존재가 되었다. 동선 공개는 직장과 거주지를 모두 공적 가시화의 영역에 두게 만든다. 사실상 당일 성소수자 감염자의 직장과 거주지가 특정되어 주변인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는 한국의 상황에서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이 크고, 이 때문에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 성소수자가 처할 수 있는 실질적 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보도이다.

주요 일간지의 기사 수와, 인터넷 중심 언론의 기사수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머니S는 머니투데이의 자회사로 설립된 경제종합지이며, 주간지로 지면을 내지만 온라인으로 일간 보도를 한다. 클릭수 확보가 매체 존립에 중요한 상황에서, 머니S의 보도 양태는 성소수자의 확진 상황을 ‘게이’ 명명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보도하다가, 게이를 쓰는 게 문제라는 지적까지 보도한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대체로 취재 없는 타 뉴스의 재생산이므로 이러한 비판이 나왔다는 보도 소스일 뿐이지 이후 보도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포털 뉴스 소비가 증가하는 퇴근길 시간대에 다시 게이를 내세운 제목을 통해 관련 이슈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표 2〉 일간지 및 인터넷 언론 생산 기사 제목 (포털 노출 시간 순)

경향신문	머니S
용인 확진자 이태원 클럽 방문... '동선 보도 경쟁' 우려도 이태원 클럽 5곳, 가평 춘천도 방문...용인 확진자, 얼마나 많이 접촉했나 용인 확진자 다녀간 클럽방문자 등 인천서 8명 검체 검사	용인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 다녀와... 500여명 어쩌나 용인 확진자 '비상'... 게이클럽→ 제2 신천지 '우려' 신규확진 4명인데... 이태원 게이클럽 '1명'에 또?(종합)
조선일보 용인 확진자, 연휴 내내 외출... 이태원 클럽도 갔다 [속보]나흘만에 코로나 국내 지역사회 확진, 국내 감염 1명, 해외유입 3명 용인 29세 확진자 접촉자도 양성 판정...지역사회 감염 우려 확산 방역 당국 "용인 확진자 최소 57명과 접촉, 1명은 확진" 5시간 동안 이태원 클럽 주점 5곳을...용인 확진자에 수백명 떠다 코로나 비상 걸린 이태원 클럽...강남 클럽은 어떤가 봤더니	용인 확진자, 입 열었다... "지인 소개로 클럽 방문, 제 잘못" 안양서 확진자 발생, 이태원 클럽 간 '용인 확진자' 접촉 용인 확진자, 2일부터 증상 호소했는데... 대형마트·이태원 클럽 방문 게이클럽 강조 '그만'... 용인 확진자 보도 '아웃팅' 논란 용인 확진자 방문한 이태원 클럽, 영업 재개 하루만에... 정부 "행정명령 가능" 이태원 클럽 간 용인 확진자, 57명 접촉... 추가 확진 우려 4시간 동안 클럽·주점 여러군데 방문... 용산구, 용인시 확진자 동선공개
한겨레 용인 코로나 확진자, 이태원 클럽 등 방문...지역사회 감염 우려 용인 확진자 추가 전파 확인...지역감염 확산 우려	[퇴근길] '게이' '이태원' '용인 확진자'... 7일 대한민국서 무슨 일이?

머니 S의 경우는 특히 실시간 기사 생산에 집중하고 취재 없는 보도를 중심으로 버즈량 생산에 주목하는 인터넷 언론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게이 클럽이라는 말이 성소수자의 경우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을 보도하면서도 다시 이어서 관련 클럽 보도를 하는 식이다. 즉, 기사 작성에서 논란을 전달할 뿐 기사 맥락과 당사 발행 기사 간의 맥락과 일관성에 대한 검토가 없다. 무엇보다, 해당 기사는 제목에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상 방역의 입장에서 성소수자들이 아웃팅을 우려하여 자신의 동선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음으로 하여 사회에 해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담고 있었다.

또한, 파티클의 문제도 보여준다. 아래의 이미지는 검은 화면으로 남성형의 얼굴을 제시하면서 물음표를 제시한다. 이는 해당 인물의 신상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을 방역의 논리로 정당화하는 상징적 이미지이다. 또한 기사 내용에서 “500여명이나 더 있는데 어떻게 하나”는 식의 수사를 사용하여, 성소수자 확진자를 모두 찾아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머니S, 2020.05.08.). 용인 확진자, 이태원 킹클럽 전에도... 동선 또 추가



5월 7일 당일 주요일간지 보도는 주로 전파 우려를 중심에 내세운다. 또한 인터넷 언론과 같이 성소수자 호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수백명 편다’와 같은 방식으로 공포를 자극하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당일 대부분의 보도는 감염자의 방문지 개수를 강조했다는데, 이는 당시 합의된 방역의 원리, 즉 참고 견디면서 감염과 전파를 막기 위해 외출을 줄이는 것이 윤리적 태도라는 공적 윤리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클럽에 간 개인의 책임을 묻는 효과를 내었다. 동선 공개의 방역 효과만큼 인권 침해 이슈가 당시 제기되었던 것은, 이러한 전지구적 전염병의 경우 전염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며,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동선 자체로 확진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기사들은 “**시 **구 **동에 거주”와 같은 식으로 거주지를 밝히는 게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방역 당국이 공개하는 것이므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2020년 초 대구 확진자 혹은 인천지를 통한 감염 상황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선 공개는 방역의 완전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합의한 민주적 기획으로 여겨졌다(이희영 외, 2021). 그런데 동선 공개는 성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결합하면서 다른 의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긴다. 먼저 첫째는, 당시 기사들이 클럽이라는 공간과 방문한 클럽의 개수를 강조하면서 성소수자와 유흥을 연결하여 이를 비윤리적인 행위로 개념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흥의 의미는 이중적인데, 먼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외출 자제를 정부가 요청했다는 의미가 표면적으로 표출된다. 즉, 방역은 온 국민이 동원되어야 하며, 방역의 핵심에는 외출과 유흥을 스스로 자제하는 윤리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다. 유흥은 일과는 달리 무가치한 것이므로, 불필요한 일이거나 이기적인 행위로 개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두 번째는 성소수자와 관련한 기존의 담론 자원들, 즉 성소수자와 유흥을 연결하여 성적 문란으로 개념화하는 자원들이 동원되는 것이다. 뉴스 자체에는 등장하지 않는 성소수자의 성적 문란함은 뉴스 보도의 댓글에서 등장하게 된다.

4. ‘이태원 클럽’ 보도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분석

에이즈 위기 시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의 병으로 지목되고, 그 원인이 문란한 성생활로 여겨지면서 사회적 해악으로 개념화되었던 것처럼(Crimp, 2004/2021), 팬데믹 상황에서 남성 동성애자의 문제는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당일 확진자 동선 공개 기사 제목은 대체로 “클럽, 클럽, 클럽, 클럽 5군데 방문” 등으로 묘사되면서, 한국 사회가 기존에 갖고 있는 소위 밤문화 및 유흥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남성 성소수자와 연결하는 기능을 했다. 뉴스 댓글은 뉴스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사회 현실에 대한 자신의 평소 의견을 주장하는 곳이기도 한데,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감염자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다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등장했고 이로 인해 혐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전개되었다.

뉴스 댓글에서 5월 7일 보도된 ‘이태원 게이 클럽’ 확진자 기사(32개) 및 5월 13일 보도된 ‘인천 학원 강사’ 기사(15개)를 추출하여, 이 기사의 댓글 중 추천 수 상위 10개 댓글 총 470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추출 기준은 언론사가 PICK으로 선정한 주요 기사 중 댓글이 100개 이상 달린 것이다. <표 3>은 댓글의 주제에 따른 분류를 표시한 것이다.

<표 3> 네이버 포털 PICK 기사 댓글 주제 분류

분류	무임승차비판과 성소수자에 대한 자원 배제	피해자 국민과 성소수자 가해자	동선 공개의 당위성과 성소수자 특권	성소수자의 문란함 비난	성소수자 아웃팅 비판 및 기사 비판	기타	계
갯수	46	137	91	140	12	44	470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국가지원금 등 국가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공정의 담론은 이러한 배분에서의 공정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표출되는데,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의료 비용을 ‘세금’으로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핵심적으로 제기된다. 특히 이처럼 유흥으로 감염되고 전파하는 자의 치료를 위한 세금 배분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을 위반한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댓글이 많았다. 이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지 역시 등장한다.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마땅히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만 공적 자산을 분배

해야 한다는 논지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공정의 담론은 ‘자격있는 자’에게 분배가 되어야 한다는 능력주의 담론과 공명하면서, 시민권의 권리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의무를 다할 때만 주어진다 방식의 개념화되는 최근 한국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능력의 평가는 점수나 객관화된 특징들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생득적인 특징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장애인이나 여성에 대한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논리가 되고 있다. 재분배에 대한 반감이 이에 따라 높아진 상황이고(이명호, 2021), 실패하거나 무시해도 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혐오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이종임 외, 2021).

한편 선량한 피해자 역시 성소수자 혐오를 위해 동원되는 담론의 틀이다. 방역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거나, 방역 상황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특정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방역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이들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다수 댓글에서 피해자로 언급되는 집단은 ‘학생들’, ‘의료진’ 또는 방역 수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일반’ 시민들 등이다. 마스크 착용, 집단시설 이용 금지 조치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방역이라는 특수한 공동의 목표를 방해하는 것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으로 정당화되는데, 이 경우 특기할 것은 ‘선량한 피해자’로서의 자신의 삶이 전시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다, 참고 살았다는 내용이 ‘피해’로 의미화된다. 개인이 개인의 의무로 제시된 것을 다하는 행위를 한 것인데, 이를 위반하는 자가 있다면 ‘피해’로 인식되는 것은 공정 담론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국가 동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시민의 의무가 강조되며, 이에 따라 성소수자의 특수한 상황이 오히려 비난을 받을 요건으로 작동한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성 정체성과 무관하게 코로나19 확진자 누구든 동선 공개해야 한다는 논지, 클럽 방문이 아니라 감염 사실 및 직업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비난의 이유라는 등, 아웃팅의 위협이 있는 성소수자의 차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비난 또는 처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더욱 “숨을” 것이기 때문에 강경한 동선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다.

결국, 이는 차이에 대한 불인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공정 담론은 ‘같은 것을 같게 하고 다른 것은 없게’ 하는 것이다(김수아, 2015). 성소수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공정 담론은 성소수자만 동선 공개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권이며, 특권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성소수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지의 댓글이 등장하며, 노골적으로 해당 확진자의 성 정체성을 강조하거나 특별히 성소수자 대상 영업장 출입자를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이는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진공 상태의 공정에 대한 주장이자, 신상 공개를 사회적 처벌과 연결해 온 온라인 사이버 불링 문화의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한편 가장 많은 비증을 차지하는 것은 ‘문란한’ 성 문화, 유흥 문화에 대한 비난이다. 기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이러한 문란에 대한 비난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연결된 의미망에 성적 문란함이 연결되는 것에 관련된다. 성소수자에 대한 표상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한 것으

로, 퀴어 문화 축제는 항상 성적 문란과 연결되어 의미화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클럽’ 자체가 비난 대상이 되지만, 게이 클럽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벌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난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댓글이 많았다. 해당 기사 내용 또는 기사에서 언급된 확진자와 관련 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원색적 혐오 발언이 ‘문란함,’ ‘더러움’ 또는 에이즈와 연결되는 경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내용, 퀴어 축제(댓글에서는 ‘동성애축제’라는 표현을 사용) 개최에 반대한다는 내용 등이 이 범주에서 빈출한다. 결국 유흥-문란으로 의미화된 성소수자는 혐오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며 혐오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자가 된다. 아래의 사례가 이러한 댓글 논리를 보여준다. 얼핏 보기에는 ‘사랑을 인정한다’면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혐오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문란함과 피해가 결합하여 혐오 원인 제공자로 성소수자를 개념화하며 성소수자 혐오는 자업자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전형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머니S 용인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 다녀와... 500여명 어쩌나(2020.05.07.)

이렇게 한국에 동성애, 성소수자 혐오를 본인 손으로 늘려가고... 솔직히 한 번 사는 인생 뭐 누굴 사랑하던지 관심 없는데 그냥 이럴때는 조심 좀 합시다. 유흥업소에서 걸리고 오는 사람들은 불쌍 하지도 않더라

또한, 소수자 혐오에서 가장 자주 동원되는 오정보 중 하나는 에이즈(HIV바이러스 보균)와 관련된 것이다. 성소수자, 특히 남성 성소수자가 에이즈를 퍼트리기를 주범이라는 것으로 성소수자를 전염성과 관련하여 사고하는 것이다. 당일 뉴스 댓글에서 에이즈가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소수자를 전염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보수 기독교 혐오 담론의 정당화 근거 중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했다. 개신교의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된 논의에서(한채운, 2013 등) 동성애 혐오의 논리로 많이 동원되는 이 주장은 온라인 뉴스 댓글에서 매우 일상화되어 존재한다.

애네들은 그냥 에이즈 걸릴 애들이라 코로나 따위는 겁 1도 없을 듯...(동일 뉴스 댓글)

성소수자의 특수성은 오히려 우려의 대상이 되는데, 성소수자가 위협을 느껴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사회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두 밝혀내야 한다는 식의 방역 담론은 아웃팅의 위협에 따라 거짓말을 했던 한 남성 학원 강사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2020년 5월 13일, 이태원 클럽 방문으로 확진되었으나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성소수자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직업을 거짓으로 신고한 한 학원 강사에 대한 보도가 늘어났다. 거짓말 인천 학원 강사로 불렸던 당사자는 국가 방역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0년 10월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500명” 혹은 “2000명”으

로 숫자로 감염의 공포를 확산하는 언론 보도가 진행되었고, 댓글의 반응은 격화되었다. 학원 강사의 경우는 직업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을 한 학생들이 확진되면서, 순진무구한 학생들을 감염시켰다는 식으로 댓글이 격화되는 것이다. 특히 이는 동성애 혐오의 주요 논리 중 하나가 청소년들에 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나영, 2019), 성소수자의 위험과 문제점에 대한 유비로 작동하게 되었다. 인천 학원 강사 관련 뉴스의 댓글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 댓글) 머니S 인천 '집단감염 시초' 102번째 확진자... 거짓말은 왜?(2020.05.13.).
- 댓글) 사형시켜서 본보기로 보여라 이기적인 사람들때문에 전국민이 피해본다.
- 댓글) 개념없는 게이 세리들 몇몇 때문에 우리 고3학생들 이렇게 끝나는건가 나 고3 가르치는 학원강사로서 정말 하루하루 맘아프고 속상하고 학생들보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온다 수능 역사상 제일 불쌍한 우리 학생들 개념없는것들 때문에 온국민이 이게 뭐난 우앙
- 댓글) 게이클럽.블랙수면방다없애라.에이즈치로 국가에서다해주는데 돈어마어마하더라.그건인권이아니라민폐집단이다.

인천 학원 강사의 경우 국가 정책에 반하여 동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과 추가 감염이 맞물려 이기적인 것으로 개념화되었는데, 이기심의 담론은 팬데믹 상황의 방역 과정에서 확진자들을 비난하는 주요 정당성 근거로 활용되었다. 한국의 경우 국가 주도의 방역을 진행하면서 핸드폰 정보 등을 활용한 개인 동선 파악을 자연화했고,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을 통해 국민 전체의 협동을 통한 방역을 강조해왔기에, 이러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개인의 행위는 국민에 대비되는 이기적 행위로 설명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기심 담론이 성소수자 혐오와 연동되는 구조를 보이게 되는데, 인천 학원 강사의 경우 아웃팅을 두려워했던 심리가 이기심으로 표상된 것이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된 조사에서 주요한 이유로 꼽은 것이 “나에게 미치는 피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는 혐오를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존재를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피해자 경쟁은 집단 내 결속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지원을 획득하면서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김영미, 2017). 피해자라는 정체성은 외부의 위협에 쉽게 상처를 입는다고 주장하게 하고, 이에 따라 분노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소수자가 어떤 피해를 끼치는가? 답변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를 준다”와 내가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일상적 혐오의 양상은 다층적이며, 직접적인 배제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최현정(2020)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일상적 혐오의 양상은 공간적 배제와 폭력의 경험이기도 하며, 특히 퀴어 페스티벌과 같

은 축제에서 축제 이후의 참여자들에 대한 공격과 물리적 제지가 공포로 남아 있다.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 마주하는 혐오는 일상적 발화처럼 사용되며, 특히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지역 혐오나 여성혐오를 위해 동원되는 경향도 강하다. 특히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경우, 지역과 성소수자 혐오가 함께 결합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설희 외, 2020).

즉 이 피해자 감각에는 실질적 피해보다는 사회적 자원이 부당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감각이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결합한다. 나라에서 누군가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서는 불리함을 준다는 인식이 최근의 공정 담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불쾌감이 곧바로 피해로 인지되던 성소수자 혐오 담론에서 팬데믹 상황은 불쾌감을 넘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성소수자, 나라의 자원을 낭비하게 하여 나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자이므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도 마땅하다는 방식으로 온라인 담론이 구성되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아래의 <표 4>는 공개 커뮤니티인 T 커뮤니티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주장이 게시된 게시물과 댓글 145건에 대해 내용분석한 결과이다.

<표 4> 커뮤니티 내 이태원 클럽 관련 게시물과 댓글 내용

무임승차 비판 및 자원 배분 제외	피해자 일반인	성소수자 특권 비난	성적 문란함 비판	타자화	당사자 거리 두기	기타	계
22	10	27	38	19	23	6	145

뉴스 댓글과 마찬가지로, 성적 문란함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 5월 7일 전후 갑자기 등장한 한국 게이 문화에 대한 설명은 남성 성소수자의 문란함을 주제로 한다. 팬데믹과 상관없이 게이 문화, 남성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 게시물들이 게시되었다. 아래의 게시글은 특정 지역이 게이 문화의 중심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댓글에서 성소수자 혐오 양상이 드러난다.

일반인들은 절대모르고 게이들만 안다는 서울의 최대 게이타운(T 커뮤니티, 2020.5.7.일자)
 댓글) 안 꼬와 성소수자인게 특권이이지.
 댓글) 으악 게이 더러워

5월 9일에는 이태원 클럽 이후의 코로나 감염 자체와는 관계없이, 확진자 동선 중 한 곳인 블랙 수면방이 ‘게이 짬질방’이라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정부 당국의 동선 상세 공개 방침에 따라, 클럽에 다녀온 확진자 중 일부가 강남의 수면방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공지되면서 해당 수면방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지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달된 것이었다.

여기는 진짜 째방이 흔한 일반째방이 아니라 게이째방이라고 성행위 하러가는곳 입니다.(T 커뮤니티, 2020.5.9.일자)

옷 다벗고 남자끼리 섹스하러가는 곳
 댓글)아 미친새끼들 진짜 개역겨워
 댓글) 더럽다 그냥....아....아니 음지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이러면 안되는거 아냐? 본인들이 매를
 버는고만...이러면 혐오하는 사람만 늘어나지 어우 더러워

역겨움, 더러움 등이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 여과없이 표현되었지만, 해당 표현은 욕설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맥락 상 성소수자가 국민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의 대상이 당연히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서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별 제재 없이 해당 게시물과 표현들을 유포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성소수자에 대한 역겨움의 발화는 온라인 공간에서 존재하던 성소수자 혐오의 기존 담론과 결합하면서 팬데믹 상황과 맞물리는 “피해”의 담론을 형성하였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주장들 예시로 들 수 있다. 여기서 발화자는, 세금으로 하는 코로나19 감염 관련 제반 조치들을 감염자들이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이다.

저기 이태원클럽이랑 게이클럽 게이째방 이런데서 걸린애들 치료금 자기부담 하라 해. (T 커뮤니티, 2020.5.9.일자)

한국 사회에서 혐오와 쉽게 연동되는 담론 중 하나는 ‘무임승차론’이다. 여성혐오의 핵심 구조가 무임승차론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의 돈으로 살아가고자 하며,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고 이야기되어 왔다(김수아, 2015). 난민과 관련된 시위에서 한 시민은 한 남성 참가자는 “난민에게 432,900원 지급, 의료, 취업, 주거, 교육까지 제공하는데 6.25 참전용사에게는 월 22만 원밖에 주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법무부 해설, 2020.1.8.). 이렇게 상대방이 부당하게 자신의 자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인식은 혐오의 정당화를 이끌어낸다. 이 경우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자원이 들어가는 가운데 성소수자들이 문란한 성생활을 하다가 질병에 걸렸으므로 국가 자원을 배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 당사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클럽 방문자들이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여성 성소수자가 남성 성소수자와 다르다는 방식의 레즈비언-게이 간 구별짓기와, 남성 성소수자 내에서의 거리두기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일정정도 존중의 정치, 즉 문제적 재현과 스테레오타입에 해당하는 우리 내부의 존재를 예외적 존재로 하면서, 스스로는 규범에 맞추어가고자 하는 소수자의 모습과 관련된다(Pitcan, Marwick, Boyd 2018).

5. 성소수자 혐오의 담론 구조

무임승차 담론에 근거하여, 소수자가 혐오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혐오는 정당한 것이라는 담론 구조는 한국의 온라인 페미니즘에서 쟁점적인 주제로 등장하는 트랜스젠더 혐오 논의에서도 반복된다. 트랜스젠더 배제 래디컬 페미니즘이 한국 온라인 페미니즘의 주요한 주체로 등장한 것은 2016년 이후인데, 등장 과정에서부터 성소수자 혐오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2015년 시작된 메갈리아 운동은 2016년 '남성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두고 갈등이 생겨서, 여성만을 위한 것이 페미니즘이라는 주장을 하는 위마드 사이트로의 분화를 겪었다. 위마드는 당시 남성 성소수자가 여성혐오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라는 이유로 동정과 특혜를 받고 여성에게 가야 하는 자원을 가져가는 존재라고 의미화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이 트랜스젠더 여성에게로 집중되었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남성이면서 여성이라고 주장하여 여성이 가져야 할 자원과 권리를 탈취하는 존재로 개념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는 트랜스젠더를 비하하기 위한 트랜스xx 밈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효민(2019)은 이러한 트랜스젠더 혐오가 기독교의 성소수자 혐오 담론과 조응하는 지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피해'의 구조가 혐오의 정당화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성소수자는 감염의 공포를 현실화한 문제적 존재이며, 성소수자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특권의 주장이고 오히려 내게 차별이 된다는 것, 가만히 집에 있었던 나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라는 주장이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정당화한다. 이는 사건에서 특정한 장면을 선택하고 배제하면서 구성되는 실재이다. 배제된 것은, 이성애규범성 내에서 성소수자가 정신질환자이거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악으로 개념화되는 현실 속에서(루인, 2015) 성소수자가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생존과 관련된 요구라는 것이다. 선택된 것은 성소수자의 문란함이라는 담론으로, 언론 보도에서부터 확장되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이 성문화에 관련된 각종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성소수자 혐오의 정당성을 만든다. 혐오의 근거로 이러한 성소수자의 친밀성 규범을 활용하는 문제는 혐오 담론 구조의 '책임 귀인'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이 친밀성 규범 자체에 대한 논의 구도는 복잡적이다. <애도와 투쟁>에서 에이즈 확산 책임을 추궁당하는 성소수자의 현실을 두고, '문란함'이 낙인이 아니라 성소수자 친밀성 문화의 특징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크립프의 말은, 이성애 규범이 절대적인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관계 맺음 방식의 차이를 긍정하기 위한 주장이다. 이는 존중의 정치 전략, 다시 말해 클럽에 가는 소수의 문란한 게이와는 다른 정상적 게이를 주장하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당사자들의 전략이 구성되는 맥락, 그리고 클럽 크루징 문화에 대한 성소수자 당사자의 양가적 입장과 관련하여 추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일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유일하게 상상되는 대안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다. 이는 이 법이 존재하면 혐오표현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이 법이 없기 때문에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플랫폼 사업자, 공적 담당 기관 등에서 제시되기 때문이기도 하다(이동후 외,

2019). 차별금지법이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금지와 관련되지 않음에도,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서의 차별이 현재의 어떤 법 체계 내에서도 도출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개신교 세력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발의 자체가 2014년 이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대는 매우 강력한 정동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라면 언론의 보도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동되는 성소수자-문란함-시민권의 연결 구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까? 한채운(2013)은 성소수자 혐오의 구조가 다수주의, 과학, 그리고 종교라는 세 가지 틀 속에서 구성된다고 하였다. 최근의 흐름은 다수주의가 이성애 규범성의 논리 위에서만이 아니라, 능력주의와 결합한 시민권의 논리에 기초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평등을 누리고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민권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권과 공정의 개념에 대한 재개념화를 요청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현재의 소수자 혐오 담론은 공정론과 결합하면서 자격없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분리하려는 실천으로 나타난다. 랑시에르가 뭉툭한 자들의 정치를 주장하며 이것의 대전제로 평등의 사상이 헌법에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논한 바를 미루어(Rancière, 1998/2013), 헌법에 있는 평등의 권리가 무엇으로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정치적 주체들이 평등하지 않은 상황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9). 혐오차별 경험조사 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수아 (2015). 여론은 흐른다?. <문화과학>, 84, 342-370.
- 김엘리 (2021). 혐오정동과 분단된 마음 정치학. <한국여성학>, 37(1), 191-221.
- 김영미 (2017). 노동시장 피해자 경쟁과 여성혐오. <황해문화>, 97, 36-51.
- 김장생 (2020). 한국의 근본주의 개신교와 동성애 혐오. <사회과학연구>, 27(S), 99-128.
- 루인 (2015). 퀴어문화축제와 LGBT/퀴어를 향한 기독교 근본주의 집단의 언설을 다시 생각하기. <실천문학>, 119, 317-325.
- 양혜우 (2019). 누가 혐오를 생산하는가? - 인종적 위계의 하층에 배치된 외국인들. <비교문화연구>, 56, 87-125.
- 윤용근 (2021).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와 법>, 7(2), 34-72.
- 음선필 (2020).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홍익법학>, 21(3), 125-163.
- 이나영·백조연 (2017). <성과학연구협회>를 중심으로 본 '개신교' 동성애 '혐오담론'. <여성학연구>, 27(1), 67-108.
- 이동후 외 (2019). 온라인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과천:방송통신위원회.
- 이명호 (2021). 한국사회의 공정과 능력주의 담론 다시 보기. <사회사상과 문화>, 24(4), 123-153.
- 이설희·김수아·홍남희 (2020). 온라인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특징과 내용 규제 쟁점. <미디어, 젠더 & 문화>, 35(3), 61-103.
- 이종임·박진우·이선민 (2021). 청년 세대의 분노와 혐오 표현의 탄생 :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혐오-언어' 표현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2(2), 5-37.
- 이효민 (2019). 페미니즘 정치학의 급진적 재구성: 한국 'TERF'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4(3), 159-224.
- 이희영·정다울·정성조 (2021). 민주적 방역, 혹은 권리 없는 자들과의 협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45, 272-314.
- 정종구·손정구 (2020).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70, 103-131.
- 정희진 (2018).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와 페미니즘. 권김현영 편.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서울:교양인.
- 최진호·이현우·홍종윤·김수정 (2021). <부동산 보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최현정 (2020). 성소수자의 혐오폭력 경험에 관한 포커스 그룹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3), 385-420.

한채윤 (2013). 동성애와 동성애 혐오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연구>, 30, 15-38.

홍성수 외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Crimp, Douglas (2002). *Melancholia and moralism : essays on AIDS and queer politics*. Cambridge, Mass. : MIT Press. 김수연 역(2021). <애도와 투쟁>. 서울: 현실문화.

Pitcan, M., Marwick, A. E., & Boyd, D. (2018). Performing a vanilla self: Respectability politics, social class, and the digital world.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23(3), 163-179.

Rancière, J. (1998). *Aux bords du politique*, Gallimard; 양창렬 역(2013).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서울: 길.

